

우리문화

특집 | 문화원 가족이 보내는 송년편지

만남 | '전원일기' 유인촌에서 '문화산파' 유인촌으로

문화토론 | 문화중심도시 어떻게 되고 있나?

2004 - 11.12

VOL.173

전국문화원연합회



뒷마당의 장독과 울타리에 소복이 쌓인 白雪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벌거숭이 나무 옆을 지나가자 놀란 겨울 참새들이 와다닥 다른 나뭇가지로 날아간다. 사진은 남산한옥마을.

글·사진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문화관광부, 부처 상징물 발표



문화관광부가 12월 10일 문화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부처 상징물을 만들고 이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상징물은 '정신문화의 강조', '대립되는 가치들의 조화', '한국성의 표현', '문화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상징물은 또 먹물의 번짐과 종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의 속성인 확산과 창조를 나타냈으며 붉은색을 통해 창조적 열정과 감성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창의한국' 건설을 목표로 삼은 문화부는 대외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구성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처 이미지 통합화(MI : Ministry Identity)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립민속박물관

겨울방학 맞아 민속마을 탐방 프로그램 마련

국립민속박물관은 방학을 맞아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학생들을 위해 야외에서 뛰어놀며 추억을 이겨낼 수 있는 민속마을 탐방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어린이민속교실'은 첫째 날에는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전래놀이기구를 만들어보고 둘째 날에는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한 농촌을 찾아가 지게로 베틀 지어보기, 짚으로 새끼를 꼬아 축구공을 만들어보는 등 낯설지만 신나는 민속놀이를 체험해보게 된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박물관과 함께 하는 민속마을 여행'은 정월대보름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대보름 풍속을 농촌마을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들은 충청남도 서산시를 찾아가 전통인형극 박첨지놀이를 관람하고 대대로 정월대보름에 행해져왔던 달집 태우기, 소지 끼우기, 대보름 밥 훑쳐 먹기 등을 체험하고 농가에서 정월대보름 밤을 보낸다. 다음날에는 오곡밥, 나물 등 정월대보름 음식을 먹고 베틀가리대 세우기, 갯벌에서 굴 채취하기 등 신나게 뛰어노는 뒤 서울로 돌아온다.

전국문화원연합회

향토문화대상에 강만의 제주공고 교사

제1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이 지난 12월 9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공모전에서 올해의 대상은 일제시대 제주공동목장의 실태를 연구한 강만의 제주공고 교사가 안았다. (관련기사 40, 66면)



2월 19 ~ 20일 서울열린극장-창동서 '봄맞이 명사초청 문화가족 큰잔치'

전국문화원연합회는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열린극장-창동에서 '봄맞이 명사초청 문화가족 큰잔치'를 개최한다.

마당극형식으로 열릴 이번 행사에서는 구청장과 저명인사등 10여명이 배우들과 함께 출연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할 수 있는 '해랑과 달지'의 등장인물들을 배역맡아 '효'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유명가수 초청 콘서트도 함께 열려 설을 앞두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열린극장-창동 소개기사 15면)

제8회 인제빙어축제 1월 27~30일 열려



제8회 인제 빙어축제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제군 부평선착장에서 개최된다. 공어, 은어, 방어, 뱀어, 병어라 불리는 빙어는 담수어종으로 6~10도의 깨끗한 물에서만 산란하는 청정어류로 축제에서는 썰매타기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열린다. 행사문의 033-460-2086

Contents

November · December 2004 _ Vol 173



특집

문화원 가족이 보내는

송년편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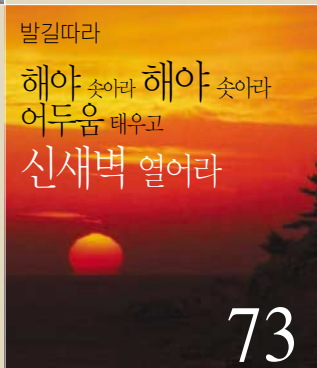


인터뷰 | 전국향토문화대상 수상자

제주전통문화의 키워드

공동목장

40



발길따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어두움 태우고

신새벽 열어라

73



만남

12

'전원일기' 유인촌에게
'문화산파' 유인촌으로...



문화마당

제2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국회에 올려 퍼진
詩語들...

34

- 4 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어떻게 되고 있나?
- 8 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중심 광주의 바람직한 축제모델
- 33 시 노란 감 한 알
- 44 화보 가창오리떼의 郡舞
- 46 사랑방 한복
- 48 문화정보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은 ~
- 54 톨마루 '훈맹정음'을 아시나요?
- 56 회의도 경쟁력이다 토론 종결은 의장 권한이지만 ~
- 62 지역따라 노래따라 '춘천아가씨' 소재 지역홍보 특독
- 66 문화뉴스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 및 심포지엄 등
- 78 문화르뽀 우리문화를 느껴봐! 배워봐! 만들어봐!
- 82 지역탐방 '자기문화' 알고 '남의 문화' 배운 2박3일
- 86 책꽃이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1. 2

문화중심도시 어떻게 되고 있나?

광주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수도인가, 문화중심도시인가?

2002년 12월 14일, 광주공원에서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후보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공약은 탄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충청권의 행정수도와 더불어서 광주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으며, 광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광주시 당국은 물론이지만, 지역에서 그간 문화와 예술분야에 종사해 왔던 많은 사람들은 문화수도라는 말에 대해 크게 매력을 느끼고, 또한 이를 위한 나름대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필자는 지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주한 3개 시범지역에 대한 용역사업에 참여하여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을 짤 바 있다. 이때 필자는 문화수도 대신에 문화중심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필자는 문화수도라는 말에 대해 다소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수도란 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을 망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가에 한정되는 범위로 인해 동북아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

역적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문화수도란 말 자체가 정치적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필자는 거의 같은 기간에 정부의 지방대학육성책에 대비하여 전남대학교의 문화예술특성화를 위한 사업발굴을 책임지고 있었다. 사업발굴보고서에서도 역시 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런데 2003년 5.18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남대학교를 방문하여 연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면서, 기 작성된 문화예술특성화사업 자체발굴보고서가 다른 자료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문화수도라는 말 대신에 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화수도를, 문화관광부는 문화중심도시를 사용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개념적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다. 필자는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혼동을 막기 위해서 방송과 신문, 그리고 지역 문화 관련 토론회 등에서 한국의 문화수도,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라는 범위를 설정하여 이 둘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존하는 개념임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



• 광주김치축제



• 남도음식문화축제

에서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서 그 여파는 자연스럽게 문화 수도로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문화수 도라는 말이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는 한편 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이 대표성을 띄게 되었다.

문화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문화중심도시의 육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무총리급의 위원장을 임명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신설하여 실무적인 계획을 주관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중심도시추진 지원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의 연계는 물론 지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위한 방안에 크게 고심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기초하고, 광주·전남혁신협의회에서 2004년 확정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광주의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문화산업을 꼽았다. 이는 바로 문화에 대한 지역적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역의 대학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에서도 그간 수없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면서 문화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방안을 제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하여 정확한 육성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시적이라면 오직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에 관한 사안 정도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문화중심도시의 개념에 대한 시민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정부에서 제시한 문화의 전당을 현재 광주에 있는 도청 주변에 2010년까지 약 7천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2004년 11월 17일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장설명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문화의 전당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조차도 전남도청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라는 점에서 광주시민 중 상당수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이 추진될지 아직도 미지수이다. 정부에서는 향후 20년에 걸쳐 국비 1조원을 포함하여 약 2조원으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정부가 제시

한 액수의 과다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종의 정치적인 보답 차원에서 선심성 계획이 아닐까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5천억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과 5천억에 이르는 기업체의 투자 유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왜 광주시민들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동참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부동산값이 크게 올랐던 것에 반해서, 문화수도와 관련하여 광주와 그 인근지역에서의 부동산값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 중에서 문화중심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가 가져다줄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거는 기대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실무사업단인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에서는 현재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문화중심도

시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몇몇 프로그램은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에 못지 않게 광주광역시에서도 역시 나름대로 금년 중반기에 <문화중심도시 환경기반조성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진정한 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었을 경우 최대의 수혜자일 수 있는 광주시민들은 왜 문화중심도시와 같은 이러한 지역의 장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어쩌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도 있는 거대한 국가적 미래 비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는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 차원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전담 업무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했을 경우, 그 수혜의 범위가 단지 광주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중심도시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시적 조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문화관광부의 일이 아니라 정부 산하 각 부처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작은 유리컵 속의 태풍처럼 극소수의 사람과 조직에 의해서 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가 있었다. 근대화의 바람과 함께 공장천하지대본(工場天下之大本)의 시대를 우리는 경과해 왔다. 이제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누구든 문화천하지대본(文化天下之大本)의 시대를 맞았음을 안다. 강대국들조차 앞으로 문화산업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예견하고, 문화강국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서두르고 있다. 문화중심도시는 광주라는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비전인 셈이다.

문화중심도시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문화적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꿈꾸지 않는 도시는 없다. 특히 시민들이 삶의 질을 문제삼은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문화는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자양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사회든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적어도 광주가 표방하는,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중심도시는 어느 다른 도시의 문화정책과는 다른 특징이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나 하는데는 아직 일치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문화중심도시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과제는 문화산업이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광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도시가 아닌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부도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가 있었다.

근대화의 바람과 함께 공장천하지대본(工場天下之大本)의 시대를 우리는 경과해 왔다. 이제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누구든 문화천하지대본(文化天下之大本)의 시대를 맞았음을 안다. 강대국들조차 앞으로 문화산업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예견하고, 문화강국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서두르고 있다. 문화중심도시는 광주라는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비전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가 추구해야 할 문화중심도시는 현재 외국에서 어떤 특정한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없었던, 그러나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력을 모아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문화산업형 도시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도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모아야 할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창조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예술에 대한 기질적 자원이 강하고, 전통적 문화자원이 풍부한 광주를 문화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육성해야 하는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글 _ 나경수 | 문학박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직, 전남대학교 박물관장,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지역특화발전분과 위원장, 27권의 저서와 80여편의 연구논문 발표, 대표저서 :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한국의 신화연구' '아시아의 쌀과 문화'

문화중심 광주의 바람직한 축제모델

▶▶ 들어가기

2004년 현재 전국의 자치행정 단위 중 시의 수는 서울특별시 등 7개 광역시를 포함하여 총 84개이다. 이 중 인구 수 25만 명 이상인 시는 37개로 이들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3천6백만이 조금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4천8백만 중 75%를 넘어서는 숫자다. 다시 말해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중급 규모 이상의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성장을 위주로 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은 앞서 살다간 사람들의 고뇌와 체취가 담긴 삶의 흔적들을 무차별로 파괴했고 각각의 도시들은 고유의 특성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했다. 수직과 수평으로의 확장에만 몰두해온 도시는 더 이상 생명과 성장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어려워졌다.

이와같이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여 고착화되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들을 풀어낼 수 없다. 다양함과 독창성을 통해 생명력을 가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만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광주·경주·부산과 신 행정수도 일원을 문화성장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수도로 지정하고 있는 광주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원초적 창의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 광주의 축제활성화는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필수요소이다. 한때 성장을 구가하던 도시도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없으면 다른 지역이나 도시에 밀려나게 된다. 더구나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상대적 우위의 개성이나 차별성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주의 바람직한 축제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축제의 의미와 기능

어느 지역이나 신화나 전설이 없는 곳은 없다. 이런 전설들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문화이다. 이런 자료를 주인공으로 축제를 만들면 현장성이 살아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서비스활동 또한 더 많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상품생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보다 문화산업으로서의 그 비중은 훨씬 크다.

축제는 성스러운 시간과 계절 변화의 시간이라는 두 특징

“너와 내가 같다면 그 순간 난 내가 아니다”는 광고 문구처럼 개성이 강한 도시인들은 남보다 돋보이는 문화적 가치를 경쟁력으로 추구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도시나 관광지를 떠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영화나 광고를 통해 반복된 도시 이미지는 문화적 랜드마크 차원에서도 참으로 중요하다.



• 광주비엔날레



• 광주국제영화제

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일상의 시간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축제는 특별한 시간이다. 엘리아데는 축제 기간을 성스러운 시간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종교, 사회, 문화 등의 제도와 활동이 확립되는 초자연적 영역으로 이해했다. 또한 축제는 신화적 사건의 영원한 현재가 된다.

한국 축제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전한다. 그 옛날에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 며칠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축제는 축제의 기본 개념이나 제의성은 퇴색된 채 단지 유희적인 놀이의 모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만 육성되고 있다. 지역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확보시켜 주는 데는 축제 만한 것이 없다.

▶▶ 문화수도 광주의 밑그림과 축제

1) 문화중심도시의 기본 계획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광주’는 2004년 3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발족에 이어 조성추진기획단이 출범하였다. 문화를 주제로 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과 함께 전통과 첨단을 결합한 문화산업도시 조성, 그리고 교육

개혁을 위한 문화교육 시범도시 등 3개항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 사업은 향후 20년에 걸쳐 추진될 계획으로서 1단계가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도시 전체의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서 상당 부분의 하드웨어는 구축하게 될 것이다. 문화계획은 인간의 삶에 대한 계획이다. 그 안에 경제, 사회, 정치, 교육, 공간 등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수도 광주의 밑그림은 비엔날레, 영화제, 김치축제 등 축제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정체성, 장소 경쟁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2) 광주의 문화적 랜드마크 정립의 필요성

문화는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학습 계승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는 문화관광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생활관습, 공연, 음악 및 미술, 문화유적 등 역사 문화 전반에 관한 관광객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광주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노력과 문화수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무형의 랜드마크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의 문화적 차별성에 대한 이 시대의 요구는 폭발적이다. “너와 내가 같다면 그 순간 난 내가 아니다”는 광고 문구처럼 개성이 강한 도시인들은 남보다 돋보이는 문화적 가치를 경쟁력으로 추구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도시나 관광지를 떠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영화나 광고를 통해 반복된 도시 이미지는 문화적 랜드마크 차원에서도 참으로 중요하다.

광주가 갖는 도시 이미지는 어떤가. 5?18로 대표되는 인권의 도시, 광주영화제의 도시, 김치축제, 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중심도시 등등 지금까지 광주는 몇 가지 대표적 문화산업과 축제를 지역관광에 연계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종합적인 시스템 산업이므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나 관광시장에 대한 폭넓은 조사 연구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슷한 형태의 영화제나 축제는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다.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 선정이나 아이템을 공모하고 상무광장, 광주천변, 도청 앞, 광주호 주변 등의 거리나 광장을 퍼레이드나 관광축제의 행사장으로 개발해야 한다.

▶▶문화와 축제의 경제적 가치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개발전략으로 부문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이로 인한 문화적 황폐화 현상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후퇴시키거나 상실케 했다. 공업화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의 전개는 전통문화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했고 미국중심의 하부문화(sub-culture)가 젊은 세대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전통사회의 가치구조나 여건이 변해버린 현대사회에서 축제의 성공은 정책적 배려는 물론이고 학문적인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시대에 축제나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하나의 역설이다. 문화의 존재방식은 경제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는 상쟁 혹은 경쟁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문화는 더불어 사는 화합이다. “다투면 늘 모자라고 양보하면 언제나 남아돈다”는 불가(佛家)의 깨우침처럼 문화는 윈-윈 게임이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문화에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도시인 아니 우리 모두는 삶에 대한 미래와 책임을 문화에서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문화와 경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광주’는 2004년 3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발족에 이어 조성추진기획단이 출범했다. 문화를 주제로 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과 함께 전통과 첨단을 결합한 문화산업도시 조성, 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한 문화교육 시범도시 등 3개항의 목표가 제시됐다.

를 밀착시켜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문화산업의 발전방향은 전통문화의 자원화를 매개로 한 문화관광산업과 신구문화의 조화를 꾀한 주제적인 축제행사에서 그 단서를 잡아야 한다. 남도문화의 원형에서 광주와 전남을 잇는 축제를 중요한 단초로 볼 수 있다.

▶▶ 문화수도 광주의 축제와 전망

지금까지 광주의 문화수도론은 그 개념의 적합성이나 용어의 적절서으로부터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집중’과 ‘집권’의 상징인 ‘수도’의 개념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문화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밖에 정치적 논리의 허와 실에 이르기까지 문화수도를 생각하는 방식은 각 계각층의 주장이 혼재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행정중심의 접근은 각 지역의 향토 축제가 ‘복사문화’의 형태로 이름까지 유사한 축제의 남발을 가져왔음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수요자인 시민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마인드가 없이 행정 편의위주의 기획이나 지역의 문화 권력과 결탁해 무원칙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수도 광주만의 ‘공간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성공은 광주를 ‘부와 관광’의 허브 도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원동력이며, 광주의 랜드마크가 정립된 이후에는 거리의 모습, 아파트의 모습, 주택

의 모습 등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 하다못해 다리의 난간이나 가로등의 기둥마저도 축제나 테마마크의 구성과 행사가 일관성을 갖고 걸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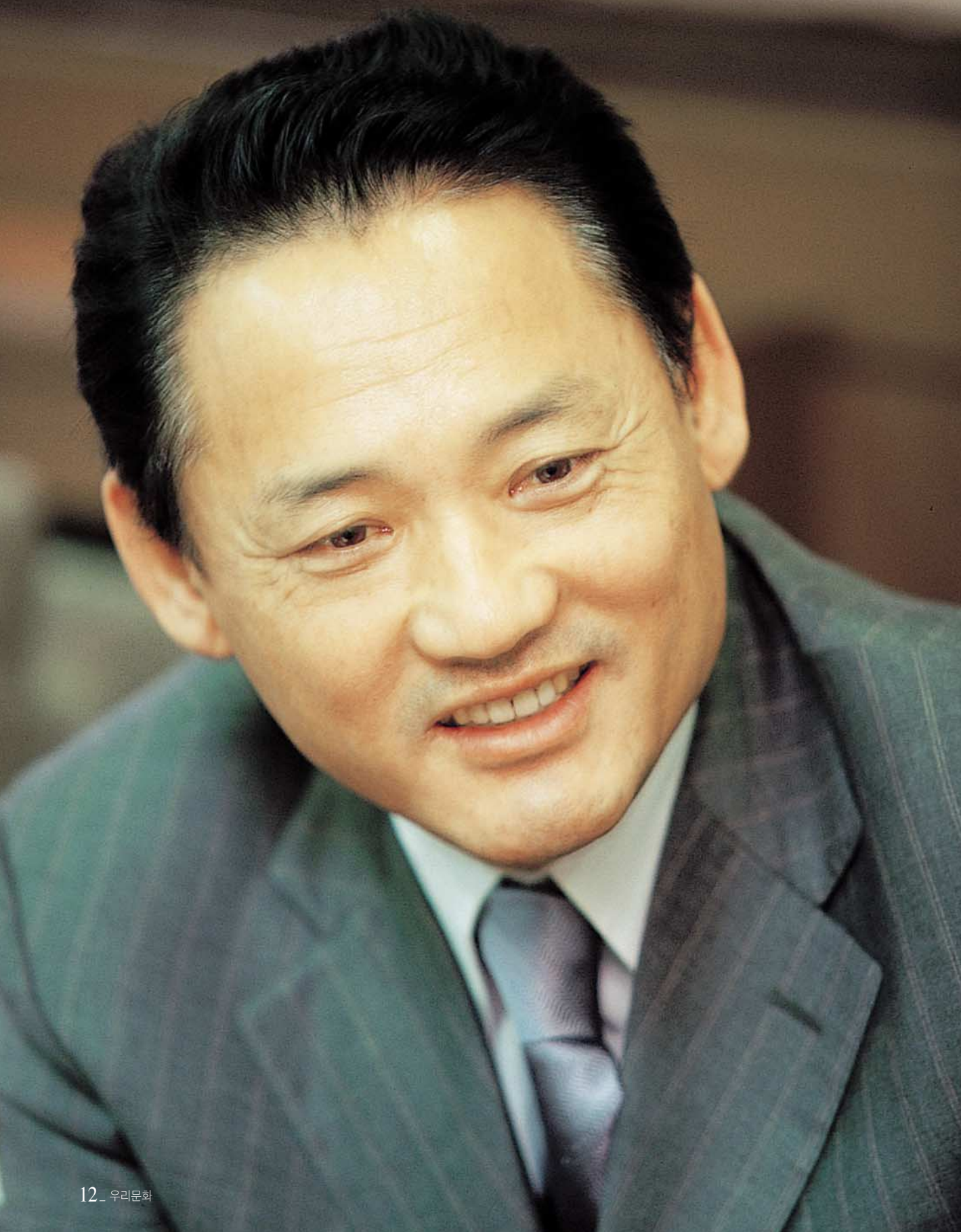
모든 문화는 지역문화에서 출발하고 지역이 세계질서의 단위로 자리하는 지방화가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좁히는 세계화 시대, 정보화 사회의 도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고유한 감각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의 형성에 있다. 미시적으로 광주의 랜드마크를 찾아내기 위한 아이디어 대전을 열든가, 바람직한 축제모델을 찾는 공모전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거시적으로는 도시개발계획의 전체적인 구상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 광주가 추진 중인 빛의 도시 구상도 중국 상해를 본 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컨셉을 구상하는 일이 하루빨리 산학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두르기보다는 백년대계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추진함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 ‘문화발굴·육성 대토론회’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글_김 종 | 문학박사
광주서구문화원장
시인·화가



TV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다들 도시로 떠나버리는
쓸쓸한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듄직한 ‘고향 지킴이’로 열연했던
탤런트 유인촌씨가 1000만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큐를 책임질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새로운 ‘배역’을 맡았다.
배우때 보다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남산으로 향했다.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원일기’ 유인촌에서 ‘문화산파’ 유인촌으로...

30여년동안 연예인 생활을 해온 유인촌(53)에게 ‘전원일기’는 아호와도 같다. 드라마 ‘전원일기’의 양촌리장 최불암의
둘째아들 유인촌해야 그에 대해 뭔가 소개한듯한 느낌이 든다. 푸근한 고향의 정취와 풍경을 담아내 오랫동안 국민들에
게 사랑받았던 이 프로그램에서 유인촌은 다들 도시로 떠나버리는 농촌을 지키는 듄직한 ‘고향 지킴이’로 나온다. 그런
그가 KBS 역사스페셜 진행자,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를 거쳐 지금은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새로운 ‘배역’을
맡고 있다. 배우 때보다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남산 오르막길 도로변 전 중앙정보부 부지
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을 찾아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 서울문화재단에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제 3백일 가까이 되어가쥑?

지난 3월에 설립하고 5월에 공식 출범식을 치렀으니 벌써 그렇게 되어나요? (유 대표는 서울문화재단의 로고가 가슴
에 선명하게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 배우로서 활동해 오시다 ‘공직생활’을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라 하구요. 그밖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쪽(문화예술계)이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분야라 이래저래 얹혀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문화예술의 분야도 많아 요구사항들도 다양하구요. 처음에는 실타래를 푸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끈질기게 설득에 설득을 해 나간 결과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매듭이 풀리고 있어요.

-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이 많다보면 개인적으로 예산지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기획의도를 자세히 말하고 사업규모와 예산, 실사라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공정성을 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랜 지인이 부탁해 오는 일을 공정성이라는 이름하에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쳐내면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더욱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취지를 이해시키고 문화예술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오히려 섭섭함을 남기지 않는거죠.



- 이동식 공연장은 정말 '이동'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창동 다음 장소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동식 공연장은 말하자면 '텐트공연장' 이에요. 언제라도 뜯었다가 다른데 설치할 수 있죠. '열린극장 창동'이 첫 단추인 셈이죠. 당초에는 6개월 내지 1년 마다 옮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맨끝이 창동인데 변변한 영화관 하나 문화공간 하나 없는 실정이에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극장을 운영해 보니까 공연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제자리를 잡으려면 3년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텐트'를 한번 옮기는데 이전비만도 1억원 가량 들구요. 그래서 당분간은 창동에 있어볼 생각입니다.

(인터뷰 중에 유 대표의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한 전화였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전화한 모양이

었다.)

- 무슨 내용인가요?

아, 오늘 모 조간신문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한겨울에 스케이트장 설치할 (우리 재단에)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아침부터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막상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위 반응들이 다들 괜챦더라고요. 어때요? 좋지 않나요? 겨울 두달동안 시청앞에서 스케이트로 달려보는 것... 파리 시청 앞 광장에도 겨울철 스케이트장이 있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6백년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 문화재단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청소년문화벤처가 있던데요.

예,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화벤처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4세~24세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서 그들만의 형식을 갖고 장애인이나 노인, 정신병원 등 문화소외계층을 순회하며 문화향유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동아리 사업을 신청해 선정이 되면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놀이터바꾸기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바꾸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놀이터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1월에 모델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인들에게 취약한 분야인 홍보마케팅분야를 강화하는 사업도 있어 반가웠습니다.

문화예술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홍보마케팅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론홍보나 마케팅전략 등에 대해 집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문화예술홍보마케팅 전문서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대표가 이끄는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창작기반조성' '생활속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예술네트워크의 허브기능강화'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등 4개의 카테고리안에 20여개의 세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역시 '생활속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중의 하나로 도봉문화원을 비롯 관악문화원, 금천문화원들이 지원을 받아 사업을 벌였다. 더욱이 유대표는 '시민문화대학' '예술가 재교육' '문화예술고위관리자과정'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의 올해 예산은 76억원으로 내년에는 가능한 한 1백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립기금도 올해 5백억원에 3백억원을 추가해 800억원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명색이 문화예술 재단으로서 제대로 사업을 벌이려면 1500억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유 대표의 생각이다.

유 대표는 도봉·중랑·강서문화원 등 아이디어가 좋고 예산이 필요한 서울시내 23개 문화원과 얼마든지 손을 잡고 일할 게 많을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에 대한 욕심 만큼 그의 하루 스케줄은 짝 차 있다. 더욱

이 요즘들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일도 부쩍 많아진다. 관공서를 비롯해 기업, 민간 단체 등을 돌아다니며 설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느라 눈코 뜰새 없다.

인터뷰 도중 유 대표가 뭔가를 설명하다 오늘이 몇일이라고 물어봤다. 사진기자가 '12월 1일' 이라고 하자 짐짓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진기자가 다시 '12월 첫날' 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시간(時感)이 회복이라도 되는듯 "벌써 12월이구나..."하고 혼잣말을 했다.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정열적으로 몰입하는 스타일 그대로 서울문화재단의 대표를 맡고 나서 9개월 여 동안 일에 빠져 시간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다. 이제 우리도 오랫동안

그에게 붙었던 '전원일기' 라는 아호를

떼고 '문화산파' 라는 새로운 아호

를 붙여주어야 할 때가 된 듯 싶

다. 3년 임기를 마치고 배우로

돌아갈 때 까지.

취재 _ 강민철
우리문화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화 기자

'서울 열린극장 창동' 으로 오세요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출구로 나와 길을 따라 7분여 동안 걸어가다 보면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원색 천막이 눈에 들어온다. 창동운동장에 들어선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이동식 천막극장'으로 서울시가 30억원을 들여 지난 9월 개관했다. '천막극장'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유랑극단 텐트처럼 썰렁하지 않다. 무려 800~12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공연장과 휴게실, 냉난방 시설, 샤워실, 분장실, 놀이방 등이 잘 갖춰져 있다. 그 중 여느 공연장과 다른 점은 화장실.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화장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성용 변기가 30개로 남성 변기에 비해 3배나 많다고 한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동물세계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킬링의 소설 '정글북'을 극화한 가족 뮤지컬 '정글 이야기'를 개관작으로 시작해 ▲년버벌 퍼포먼스 '점프' (10월15일~11월7일) ▲마당놀이 '뽕파전' (11월13일~12월5일) ▲음악극 '이중섭 그림속 이야기' (12월11~26일)가 이어지고 있다. 새해 1월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임진택씨가 연출을 맡은 가운데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감지원 변호사, 김현풍 강북구청장 등이 배우로 나오는 설날맞이 문화가족을 위한 마당극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원 가족이 보내는

송년편지

어느덧 우리는 2004년의 꼬트머리에 서 있다. 올 한해도 문화원은 전통과 현대를 양 톱니바퀴로 삼아 더 나은 세기로 나아가려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전국의 문화현장에서 일하며 느꼈던 문화원 가족들의 추억과 소감들을 담아보았다. <편집자주>



21C는 문화와 신기술의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가 인터넷시대로 진입했지만 물질보다 정신이 우위에 있다는 가치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어 신기술과 수출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그럴수록 전통과 역사와 교육을 포함하는 문화와 내면적인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자유주의와 고전주의를 그들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는데 자기들의 방식대로 조화시키며 성장하는데 투자에 힘써왔습니다. 문화강국으로 성장한 프랑스가 그렇고 왕실을 상징적 가치로 보존하는 영국과 일본이 그러합니다. 초 강대국인 미국이 늘 부러워하는 점도 상기한 나라들의 문화와 전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빗내는 일을 방치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생력 없는 장르’도 지원 다양한 문화혜택의 기회를...

요즘 같은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비롯 이념의 갈등, 문화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전제되지 않는 국가 경쟁력과

기술경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 축제를 열정적으로 펼치고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한계로 국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호재국 | 강북문화원장

이에 전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관광부에서는 첫째, 자생력이 없는 장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방에서 문화예술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족정기를 이어가는 후세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해를 보내는 마음이 어딘가 어수선하다. 문화가족들이 둘 이상 모이면 토로하는 말들이 있다. 열악한 재정과 소수의 인원 탓에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지방문화원의 직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눈빛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대화는 지역문화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는 내용으로 결론난다. 흐뭇한 일이다. 나 또한 지방문화원의 직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만은 우리 스스로 지켜보자고 직원들과 함께 다짐해보곤 한다. “문화원 주변의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과 문화행사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정보를 공유하여 삶의 싹터를 만들어보자고”

산업화에 따른 급변한 사회구조가 개인주의와 님비현상, 빈부격차를 낳

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문화원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전통문화가 말살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충효예절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사업을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을 통한 우리문화를 보급, 장려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전통문화 지킴이로서 일선에서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솔선수범의 자세가 지역주민과 어울어 질때 문화원의 존재가 발할 것 같다. 이런 고충을 그 누가 알까마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문화교실 수강생 아주머니의 따스한 눈빛과 웃음을 볼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우리문화원이 4년전부터 무료로 운영한 어머니 한글교실은 우리만의 자랑이다. 어머니한글교실 수강생이 그 동안 겪었던 문맹의 탄식과 고충은 아무도 모른다면 문화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하다는 표현이 글로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버스·전철을 타면 불안해 왔던 이야기, 손주한테 토박토박 글을 읽고 써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동문화원장께 감사하고, 구청장께 감사하고, 사무국장이 최고야”를 외치던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때, 책상위에 놓인 초등학교 1학년 실력보다 나을지 모르는 감사의 편지를 바라다 볼 때, 오늘은 구립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이 성대히 끝났다고 떡 한말을 보내겠다고 회장단의 전화를 만류하고 있는데, 문화탐방을 잘 갔다 왔다는 감사의 편지가 구청장실에 보내왔다고 알려 왔을때.... 이럴 때마다 스스로 “나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천직이야”라고 외쳐본다.

한글 터득한 할머니가 감사 편지 보낼 때 ‘보람’



오광택 | 성동문화원 사무국장

갑신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을유년 희망에 가득찬 닭의 울음소리가 짝 막혔던 우리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해 주었으면 하는 설레임으로 새해를 기다려 본다.

모든 사람들은 문화는 국력이라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현실에 부딪히면 문화가 밥 먹여 주냐는 듯이 뒤로 내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뽀뽀한 예산을 짤 때 문화 부문 예산부터 깎아버리는 것이 작금의 형편이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국비가 내년에는 2004년의 85%만이 교부세로 자치단체에 지원되어 문화부문 예산이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해졌다. 국비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방 문화를 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문화에 과연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할지는 매우 비관적인 것이 나만의 염려는 아닐 것이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이 막중한 일을 지방문화원들은 열악한 재정 지원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해 나오고 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격려를 못할 망정 이마저 운영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문화 후진을 자초하는 일이라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문화 지킴이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만이 가능한 일이다. 지방문화원이 살아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만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다양한 세계화 시대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지방문화원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문화관광부 직원들의 건투를 빌며 이 간절한 발언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새해에는 모두 소원성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배정시 '문화' 뒤로 밀릴까 염려



박종오 | 부산 연제문화원 사무국장

‘황량한’ 폐교 를 ‘따뜻한’ 문화공간 으로...



이승영 | 대구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대구북구문화원은 폐교를 활용해 문화예술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시에서 가장 인접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우리문화원은 타 문화기관과는 달리 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높다.

아파트단지, 학교, 학원 등 모두가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고 둘러보면 제대로 산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반면에 자연 속에 있는 우리문화원은 각박한 도심의 인심에 지쳐가는 지역민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문화행사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벌써 3회를 넘는 야외영화페스티벌, 주말 가족생활 도자기무료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등은 이미 지역에서 각광받는 행사가 되어 타 기관에서도 모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소단위의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반응한 연극 부부 쿨하게 살기, 가족미술치료 등은 지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우리 문화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는 문화행사를 기획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의 문화전도사로 자리 잡고 있다. 폐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체험학습장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았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택시를 타도 폐교에 가자고 하면 ‘거기 북구문화원이잖아요’ 라는 운전기사의 대답을 듣기도 한다.

문화란 지금 당장 내 삶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아니지만 숨이 물을 먹듯 빠르게 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북구문화원도 지역민들의 삶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당당히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민들이 삶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북구문화원을 찾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민들이 자연 속에 위치한 대구북구문화원을 찾아 삶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

문화원은 사회교육 · 평생교육의 터전



조연섭 | 동해문화원 사무국장

2004 동해문화원 문화학교 종합예술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총학생회 조직의 봉사 정신이다. 매일 오전, 오후 예술 전을 체크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각반을 간식을 준비하여 찾아다니며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사무국의 준비에 함께 동참하자”고 외치는 총학생회 임원들을 볼 때 마치 예전 대학시절 총학생회 여성국장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2004 제8회 동해문화원 문화학교 종합예술전은 모범생선발과 문화원 가족가요제등을 병행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성황을 이루고 새해를 약속했다.

그렇다! 지역문화원의 문화학교가 이렇게 지역 주부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의 현장임을 사무국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다. 또한 일반 젊은이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각종 아카데미들로 좋은 결실을 보고 있지만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는 그야말로 사회교육이요 평생교육의 현장에 손색이 없음을 자신하며 비단 우리 문화원 뿐 아닌 전국 문화원의 수강생을 모두 집계한다면 평생교육의 현장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원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저 ‘문화원은 왜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따위의 기준 없는 잣대로 늘 외부에서 나를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그것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현장에 와서 느끼고 기존의 선임 직원 분들의 자문을 얻고 학습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정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 지역문화원의 문화학교의 오랜 운영경험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오래전 본인은 모 방송사에 약10년 정도 아나운서·촬영 등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각 방송사별 수백억에 이르는 중복내지는 추가투자로 전국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지출된 환경을 접할 수 있었다. 기존의 경험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방송사에 대역을 확장하고 채널을 확장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면 엄청난 경비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당시 실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의 생각이다.

위의 경험을 서술한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문화·예술교육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가장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원의 운영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게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문화원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고 자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화원의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핵심역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꼈던 일은 특히 문화유적답사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답사 계획을 수립하여 년 4회에 걸쳐 1회에 90명이 참가하여 전국을 도별로 고루 당일코스로 시행결과 시민의 반응과 호응도가 높아 금년 1년은 횡수와 인원을 증가시켜 6차에 걸쳐 1회에 120여명으로 총 연인원 720명이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문화유적을 답사할 목적지를 년 중 절기에 따라 그 고장의 자연환경을 감안하여 선정하였기에 이중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5월의 전라북도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와 11월초 충남 지역 단풍구경과 답사 활동 등은 지역의 특성의 의미를 더 한층 실감케 하였다. 또한 각 고장에 따라 토속음식을 직접 음미해 보고 특산물 구경도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답사 활동을 하기 이전에 길라잡이(답사 자료집)를 접수자에게 사전 배부하여 답사 예정지

에 대한 미리 탐구학습으로 문화재의 특유 가치를 이해하고 유물유적과 얹힌 인물도 파악하게 하여 그 의미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자못 컸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여러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태와 유물, 유적 그리고 주민 생활모습 등 답사활동은 시민 모두가 큰 관심 속에 참가를 희망하게 되어 지난 해 보다 규모를 증가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생기게 되었다. 참가 인원 증원으로 업무증대와 시골 답사 현지 형편에서 백여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에 각기 다른 음식의 취향을 맞추기도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유산 해설사도 부득이 증원하는 등 부족한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따르게 되었다.

2005년 본 행사는 부득이 금년 수준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답사의 의미와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제출토록 하여 년 말 심사를 통해 시상과 홍보로 문화유산을 더욱 이해하여 문화시민의 자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2년간의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우리의 많은 문화재가 훼손·도난 또는 소실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문화재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아끼고 보전하는데 함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다른 문화 배우며 보람 찾고 토속 음식 맛보며 흥미 느껴



이병탁 | 구리문화원 부원장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과 함께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노력으로 시행된 ‘로또 복권기금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2004년 문화사업을 마무리하며 문화원장으로 어느해보다 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다.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사업은 한·일 줄다리기 심포지움과 KBS 교향악단 초청 공연을 들 수 있겠다. 우리문화원에서 1996년 중국민속공예품전시회, 1997년 당진군 자매결연 도시인 스노우미시군(씨애틀) 셋별전통예술단 초청 공연 등 활발한 해외교류사업을 통한 문화 교류에 힘써왔으나 단발성 행사에 그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금년 한·일 줄다리기 심포지움은 기지시 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75호)와 일본 가리와노 줄다리기 양국간에 줄다리기 행사를 참관하고 한·일 민속 문화 예술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기지시 줄다리기를 세계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1년 ‘여자’라는 이유로 힘들기도... 외국어 교육·동아리활동 강화할 터

또한 종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규모가 큰 KBS Orchestra 초청 연주를 주최함으로써

써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룬 사업도 많았지만 늘 아쉬고 부족한 것은 아마 욕심이 지나쳤던 탓인 것도 같다.

여자라서 힘든 상황도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정말 속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문화원장에 취임했을때에 비하면 불과 이삼년 사이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녀동등 수준으로 향상되고 여성문화원장에 대한 남성들의 편견이 대부분 없어진 듯 하여, 이점은 나로 하여금 상당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

강좌내용도 더욱 다양화 하여 기존의 강좌 외 외국어부분을 더 확대하고 금속공예, 연극영화, 관악반 등의 강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전 군민이 2개국 이상의 외국어회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문화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취미를 살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도있는 교육을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현실화 되려면 우리 지방문화원들도 전통을 기초로 하면서 거시적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지만 문화원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너무나 벽차기에 유관기관의 협력을 바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지역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원들이 펼치는 문화사업의 나아갈 길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2005년 부터는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어왔던 모든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애정과 문화행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에 따른 과감한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이 활기차게 지역 문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정정희 | 당진문화원장

‘어린이 인라인 교실’ 개설, 문화원도 ‘씹씹’ 달렸으면...



정현희 | 문경문화원 계장

지난 여름에 국장님께 살며시 건의드려서 어린이 인라인 체험교실을 열었다. ‘어린이 인라인 교실’을 제시했을 때 인라인은 체육회에서 해야 할 교육인데 왜 문화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냐는 말씀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국장님께서 제 뜻을 허락해 주시고 밀어 주셔서 개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원’이란 곳에 대한 관심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교육에서 한번 더 모아지리라 기대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이라 따로 예산이 없었다.

동호회 활동 일년 ‘짬밥’으로 무료 인라인 강사진을 섭외하였고 홍보는 시청과 문화원 홈페이지, 각급 학교에 보낸 안내 공문과 현수막 한 장! 그리고 문화학교 수강생 분들께 드린 안내문이 전부였다. 모집기간 2주동안 국장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얼마나 초조했던지 선착순 20명이 혹시 채워지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나 다행히 1·2기 모두 시작도 전에 마감되었다.

교육을 이틀정도 앞두었을 때 시청에서 온 초청장!

우리가 교육을 하기로 했던 장소가 일주일중 3일간 주차장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몇 년을 일했는데 막상 이런 실수를..., 허락해 주신 국장님 볼 면목도 없고, 새로운 장소 물색도 어렵고..., 그렇다고 수업을 포기할수도 없고...

그렇게 초조하게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 첫수업이 시작되었다.

인라인 동호회의 회원 여러분들이 차로 바리케이트를 쳐주고(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었기 때문에) 주변분들에게 양해도 구해주셨다

각 일주일씩 1·2기 수업을 하는 동안 무료 강습에 선풍 응해준 선배님, 저녁시간 쪼개어 도와준 동호회 친구들, 교육 중간 중간 아이스크림을 한박스씩 사들고 오셔서 아이들을 환호하게 해 주셨던 국장님, 아파서 스켓을 신지도 못하면서 인라인장에 앉아 교육을 지켜보던 아이, 이런 교육 시간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하셨던 어머님들, 교육기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보내온 몇통의 e-mail..., 처음 제안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와 닿았던 책임감, 그리고 떨림. 아마도 첫경험? 이라 더 애뜻하고 기억이 많은 것 같다.

‘놀이 오는’ 문화원이 아닌 ‘배우러 오는’ 문화원!



이은미 | 남해문화원 간사

처음 문화원 업무를 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문화원 주관 행사로 치러지고 있음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어느덧 2004년의 끝자락에 서 있다. 짧은 시간 수 많은 사람들과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기에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알찬 한 해가 아닌가 싶다.

문화원에서 가장 큰 일은 아마도 문화학교 수강생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줄 수 있다는 것인 것 같다. 시골의 촌부와 아낙네들이 자식을 다 키워 결혼까지 시켜 놓은 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즐기고 자신에게 투자 하려고 해도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여의치 않다. 그러나 문화원의 문화학교 덕분에 일주일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네 번 서예, 풍물, 요가, 고전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얻는다. 이처럼 배움의 길에 정진하시는 노인장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숙연한 마음이 생겼다. 나름대로 같고 닮은 실력을 군내 크고 작은 행사에 시연도 하시고 때로는 봉사활동도 하시는 모습에 더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남해문화원과 일본의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일본지부가 문화교류를 통한 국악한마당 공연때 객석을 꽉 메운 군민과 문화가족 그리고 무대에서 펼쳐진 당당하고 박력있던 문화학교 학생들의 공연모습에 새삼 문화원의 가족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른다. 또 이런 무대에 서 있는 것 만으로 감사하다는 눈빛들이 어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이 행사가 열린 시점이 문화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시기였기에 한층 더 문화원의 발전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원은 노인정과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젊은 원장님의 취임이 문화원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더욱 발전 할 수 있다는 수강생들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취임식이었고 그 지역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원으로서 어떠한 수장이 자리를 잡고 어떤 식의 문화마인드가 있는지는 문화원의 대외적인 이미지의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다. 얼마되지 않았던 근무기간 동안 보아온 문화원은 지역행사의 90%를 차지하고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이고자 노력하는 어른신들의 자세에서 놀러오는 문화원이 아닌 배우고자 찾아오는 문화원임을 새삼 느꼈다. 그러기에 문화원 직원으로서 문화원 수강생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부족한 점을 배워가면서 한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해야겠다.

군산문화원에 재직한 지 어느덧 일 년. 그동안 문화원 사업중 나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고장의 문혀있던 공신인 최호장군의 재발견이 아닌가 싶다.

최호장군은 지금 TV에서 방송중인 이순신장군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다. 그런 최호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군산문화원에서는 매해 장군의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추모제만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최호장군이란 분은 아직까지도 생소한 단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분이 우리고장 출신이라는 점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 해 최호장군에 대한 책자발간사업이 있었고 필자로부터 원고를 넘겨받아 워드 작업을 하면서 그 분에 대한 미처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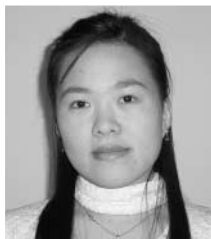
‘최호 장군’ 워드 작업하며 숨은 우국충정에 ‘감동’

임진왜란 때에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함경도 일대를 장악한 왜군의 정예부대를 막아내어 의주를 지키는 데 큰공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고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와 연합하여 북상하는 왜군의 보

급로를 차단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해전에서 왜군을 맞아 선전하시기도 칠천량해전에서 왜군을 맞아 싸우던 중 왜군의 집중포화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우국충절의 정신으로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한 몸 아끼지 않고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신 장군의 업적을 워드 작업을 하면서 향토사를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워드 작업이 완료되어 인쇄소에서 책이 나온 후에 충원공 최호 장군책자는 각계의 많은 언론사와, 일반 시민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전해졌다. 이 한 권의 책자발간으로 일반시민들이 최호장군을 다 안다고 말할 순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금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최호장군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나타냈다. 이것이 비단 반짝 관심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최호장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한다면 얼마 후에는 최호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정은혜 | 군산문화원 간사

작익은 홍시처럼 전업주부로서의 나의 생활이 몸에 익어 가고 있던 무렵, 문화원 생활은 나에게 또 다른 삶의 활력소로 다가왔다. 결혼 전 세무관련 일만했던 내게 문화원의 생활은 좀 생소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됐다.

문화원 생활 2년, 역사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식을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가서 유적지를 볼 때마다 그만큼 나 자신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기와 유치원생인 둘째 아이를 데리고 문화체험 중 갯벌문화체험현장 학습이 평일에 있어 ‘학교를 보낼까? 현장 학습에 같이 동행을 할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망설임을 후회할 만큼 알차고 즐거운 체험학습이었다.

인근에 있는 체험장이지만 한번도 가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엄마의 능력으로 답사팀과 팀

워크를 이루어 출~~~발!

가족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을 나선 아이들은 낮설고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아직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우리고장의 역사와 인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라는 해설사님

의 설명에 아는지 모르는지 ‘끄덕 끄덕’ 하며 열심히 듣는 걸 보면서 뿌듯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신재효 선생님이 누구야”하고 한번 더 되새겨 물었을 때 그분을 묘소에 가서 참배해서인지 기억을 하고 있었다. 몸으로 체득하는 현장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우리 애들과 잡았던 조개로 국을 끓여 먹으니 이것이 바로 꿀맛이었다. 우리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꿔나가는 일, 이런 꿈나무들에게 현장체험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데려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생활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도 “신분보장에 적절한 보수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미약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하루아침에 처우가 좋아지길란 어려운 거라 생각한다. 가끔 주위에서 “내년부터는 간사들 보수가 없다는데”라고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런 말들이 비수되어 마음에 꽂히고 불안한 마음 아시는지요!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

간사들도 몇몇한 신분보장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원 생활에 아쉬움이 있다면 ‘보수’와 ‘신분 보장’



윤승희 | 고창문화원 간사

국회에서 자작시 ‘소’ 낭송하며 청중과 함께 감동의 시간...

서오근 | 무안문화원장 · 시인



11월 18일은 대한민국 국회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이었습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장내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본인도 이 낭송회에 졸작인 자작시 ‘소’를 낭송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원로시인 및 국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시심(詩心)을 나누는 일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뜻 깊은 자리라 여겨져 더욱 아름다운 밤으로 생각 한다”는 권용태 회장의 인사말씀과 “전국문화원 연합회가 우리 국회와 함께 마련한 ‘국민시 낭송의 밤’ 행사는 여러 면에서 소중합니다. 정치의 요람인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시를 사랑하는 문화가족이 만나 시를 낭송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씻김굿이 될 뿐 아니라, ‘열린 국회’ ‘문화 국회’를 상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격려말씀에 이어, 대부분이 원로이신 시인 열 한분과 국회의원 등 열다섯 분의 시가 순서에 따라 낭송될 때마다 장내는 쥐죽은 듯 고요해 지고, 낭랑히 낭송하는 시들만 장내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각 당에서 출연한 선량들은 국회에서 행하던 아귀다툼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 주었지만 오늘 시를 낭송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신성하고 거룩하게 까지 비추어졌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시를 들려주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요법을 사용한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디다만 오늘 밤을 통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 이념이 달라도 우리가 시 앞에 서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교훈도 깨닫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시시 때때로 시낭송회는 개최됩니다. 그러나 흔히 열리는 시낭송회 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열리는 시낭송회가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원로시인들과 국회의원들이 격의 없이 한데 어울려 시를 낭송하는 일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열린 국회’ ‘문화국회’를 지향하는 국회가 자기 갱신을 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마땅히 가져야 할 문화행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좋은 아이টে으로 우리 문화원의 위상을 높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낭송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향각지에서 올라온 청중들도 뭉클한 감회에 젖어 가벼운 걸음으로 귀가했으리라 믿어집니다.

지금 농어촌은 공동화의 '극점'... 지방문화에 대한 투자 절실할 때



김용호 | 해남문화원장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설렘과 기대만이 내 가슴에 남아 있다. 문화원장 취임을 전후로 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수많은 상념들이 이젠 구체적인 형상으로 내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해남문화원에 출입한지 20여 년에 가깝다. 그동안 황도훈 前院長 밑에서 어깨너머지만 문화원 경영 수업을 받았고, 그 속에서 지방문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원장 취임 후에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막연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수업의 결과물이다.

지금 농어촌의 문화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 위기는 농어촌 경제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농어촌의 생태와 어우러진 문화 마케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함에도 문화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 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더욱이 문화산업 육성 비용이나 문화 인프라 구축비용은 재원이 없다고 투자를 꺼린다.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에 투자를 하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대부분 10% 안팎이다 보니 문화관련 또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도 소홀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십 수 년간 우리 문화와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외쳐보지만 목만 설 따름이다. 농어촌 지역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방 문화원의 활성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절실하다. 지금 농어촌은 공동화의 극점에 서 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지방 문화에 투자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원장에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지역이 대단히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능력 있고 열정적인 후배들과 진심한 선배들이 있어서 지방문화의 미래가 결코 비관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들과 함께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방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늘 앞장설 것이다.

문 화원에 첫 발을 딛게 된 것은 2001년 12월 18일이었다.

문화원과 운명을 함께하게 된 첫 날. 어둡고 긴 터널 지하를 거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무실은 누가 보아도 열악한 환경이었다. 공기 순환이 되지 않은 내부 시설과 통로를 따라 사무실 전체의 천장은 석면이 그대로 들어나 있었다. 준비하게 꽃아져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주민과 함께 해야 할 문화원이 찾아오기도 힘든 지하구석에 왜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 곰팡이 냄새와 낮은 기온으로 7월~10월은 난로 없이 생활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날은 난로를 옆에 두고 생활해야 할 정도로 춥다.



열악한 문화원 환경과의 싸움! 그러나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곳

그런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벌써 3년이란 세월을 문화원에서 울고 웃으며 버텨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은 비록 안 좋았지만 전원장님이신 황도훈 원장님의 깊은 배려와 친할 아버지 같은 자상하심과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일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나를 문화원에 발을 뺄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다.

나는 문화원의 일에 대한 큰 애착보다 환경이 워낙 나빠서, 그로 인해 다른 분들도 몸이 허약해지셨기 때문에 항상 그만 두고 싶은 나약한 마음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비록 일에 대한 애착은 없었지만 일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을 그만 할 것이다. 문화원에서 많은 걸 배웠고, 느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문화원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유리 | 해남문화원 간사

연갈색의 색을 띤 가을비가 산 마을을 적시고 있다. 제주 꽃들의 물기를 안고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답다. 땀감을 위해 집을 떠난 어머니를 기다리며 유년시절을 보낸 내 고향을 생각하면 아직도 몽클한 그리움처럼 향수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내 고향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원에 입사하여 근무한지도 이제 6년이 됐다. 세월이 무상함을 느낀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사람은 또한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던가. 우리 문화원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었으니 내가 근무한 6년이란 세월이 짧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문화원에 재직하면서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라면 향토사를 발굴하고 정리, 발간하는 일이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는 달리 1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변화가 많은 곳이다. 고려시대 제주를 거쳐간 부임관이 25명이나 되고, 조선왕조가 개국된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제주목사·관찰사·군수 등을 거쳐간 인물만도 286명이나 된다. 이들이 남긴 기록들을 발굴해서 국역으로 번역하는 일은 제주의 여건상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망실되고 있는 제주문화 편린들 하나 둘 모으다 보니 한 해가...

제주도내에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 있는 고서들은 제주에 보관하고 있는 한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는 번역되고 정리되겠지만 제주에 없는 것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1966년에 역주로 발간한 지영록(知瀛錄)은 조선조 숙종때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익태(李益泰·주:병조참의 1633.8.2~1704.11.20)가 저술한 것으로서 제주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멜표착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탐라시대부터 19세기까지 제주를 거쳐간 인물들을 사진형식으로 정리한 「제주사인명사전」, 20세기 인사들 중 작고하신 분들을 위주로 수록한 「20세기인명사전」,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제주사를 정립한 사료가 없어 아쉬워하던 차에 「증보탐라지」를 영인본과 수정본으로 금년도에 발간하고, 내년도에 역주본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 보도됨으로서 제주도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문화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95년 「제주시 옛 지명」, '96년 「속읍청사」, '97년 「병자일록」·「문학속의 제주」, '98년 「수신사일기」·「제주의 여인상」, '99년 「남유록·달고사·탐라별곡·훈민편」, '00년 「노굴·화암시집」·「옛 사람들의 등 한라산기」, '01년 「노봉문집상」·「남사일록」·「옛 제주인의 표해록」, '02년 「노봉문집 하」·「서복집단과 제주도」, '03년 「삼읍교학사료집」, '04년 「세재집」 등 제주도에 관련된, 하지만 제주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서들을 찾아서 번역하여 발간하고 있다. 지회장님과 원장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모르겠다.



현태용 |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바리' 할머니의 미소

모소현 | 북제주문화원 간사



문화원 가족이 된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햇살 따뜻한 오후, 시간의 흐름에 약간은 먼지가 쌓인 벽에 걸린

문 시계를 바라보며 결코 짧지만은 않은 1년이란 시간을 되돌아본다
문화원 개원 이후 모든 것들이 두렵기만한 내게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해주는 그 시간이 떠오른다. 학생티를 벗지 못한 채 문화원 간사라는 위치를 맡게 되었다. 아직은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익숙했던 내게 문화체험프로그램이란 행사가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 문화원이 주관하는 만큼 예약에서 진행까지 책임이 따르게 되었다. 전몰군경미망인이라는 단체의 이름도 낯설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다. 행사일정이 잡혀가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나의 불안감은 더해만 갔다. 2004년 9월9일 조천독립기념관부터 그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버스를 타며 이동하는 동안 할머니들의 지나온 세월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에게서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되던 그 모든 사건들의 산 증인이었다. 지금 내 나이에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일평생 자식과 나라를 위해 한줌의 재로 변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오신 할머니들, 세월의 흔적이 지나간 자리엔 굵은 허리와 깊게 패인 주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버스는 김녕미로공원에 닿았다. 미로속을 헤매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을 보니 남은 일정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즐겁게 헤드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마지막 종착지인 우도에 도착했다. 우도에 처음오신 할머니들은 연신 감탄사를 자아내시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손을 꼭 잡아주셨다.

시대의 흐름에 어쩔수없이 청춘을 내 맡겨버린 할머니들, 그 시간속에서도 아내라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제주도 비바리답게 굳세게 견뎌오신 할머니들, 비록 짧은 2일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내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체온은 내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다시 한번 문화원 가족인 내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러워진다.

노란 감 한 알

노란 감 한 알이 지상에 매달려 있다.
 까치 밥 한 톨이 허공에 떠 있다.
 올려다보면 깃털의 비행
 내려다보면 뼈 가시의 행렬
 없어질때 없어지더라도
 가벼운 깃털을 날개 달고
 뼈 가시로 헤엄치고 싶다
 호젓이 허공에 떠 보니
 보인다
 숨통을 틀어 막던 새벽안개도 걷혀갈 뿐이요
 천둥과 비바람도 잠시 지나갈 뿐이요
 모두 떠난 뒤에 남은건 타는 노을속
 죽지않은 노란 감 한 알 뿐이다
 망해도 죽지 않고
 썩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않은
 지상의 노란 감 한 알!



시인 박정희 | 선문대 교수

『현대문학』으로 등단. 한국문학상·동국문학상 등 수상. 서울여대 박사학위 취득, 전 한양여대 교수. 시집 『내실』 『문풍지』 외 다수, 에세이집 『그대 내곁에 영원히』, 시론집 『언어의 혁명』

제2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국회에 올려 퍼진 詩語들...

김원웅, 김남조, 박찬숙, 강지원, 정병국, 이시형 등 유명인사 대거 출연



11월 18일(목) 저녁 5시 반부터 국회의사당 경내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와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이 열렸다.

현악 3중주(추계트리오)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국회 향기로 가득한 강당에는 시 낭송 출연진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화가족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박정희 님(전 한양여대 교수/한국어 성문학인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시를 인간 영혼의 정수라고 일컫는 것은 시 속에 시대의 희노애락과 천태만상 인간군상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서두를 열면서 "파스한 가슴끼리 만나 희망을 엮어내는 멋진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국민의 시 낭송회가 연륜을 거듭할수록 국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인 교감과 감흥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어루만져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황금찬 시인(계간 '시마을' 발행인)이 자작시 '등대지기'를 낭송하였다.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구/열린우리당/국회윤리특별위원장)은 자작시 '오리는 백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와 작자 미상의 '우리 인디언 말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편을 낭송하고, 김학원 의원(충남 부여·청양군/자유민주연합 대표)은 이육사의 '땡땡'을 낭송하였다.

중간에 한국무용가 전은경 님의 살풀이 공연이 이어졌으며, 다시 전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며 시인인 문병란 님은 자작시 '가을행'을, 김남조 시인(숙명여대 명예교수/예술원 회원)은 자작시 '사랑과 동참으로'를, 박찬숙 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전 아나운서)은 김남조 시인의 '이십세기'를, 무안문화원장이며 시인인 서오근 원장은 자작시 '소'를, 수필가이며 고천상병 시인의 부인 묵순옥 여사(카페 '귀천' 대표)는 천상병 시인의 '다음'을 낭송했다.

특별출연 순서로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장)의 가곡 '청산에 살리라'와 앵글 송 '선구자'를 독창으로 감상하고, 심재덕 의원(수원시 장안구/열린우리당/전 수원시장)으로부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낭송되었다.

이근배 시인(전 한국시인협회장)은 자작시 '잔(簫)'을, 이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열린우리당/국회문화관광위 감사위원)은 정희성 시인의 '저문 강에 삼을 씻고'를, 국회시사랑회 회원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요섭 님은 자작시 '밤나무 털기'를,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은 조태일 시인의 '국토 서시'를, 민영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은 자작시 '묘비명'을,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열린우리당/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은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성기조 시인(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이사장)은 자작시 '꽃밭'을 각각 낭송하였다.

최윤영 님(프랑스 아비뇽 축제/이탈리아 페스티벌 공연)의 경기민요 공연이 있는 다음 정병국 의원(가평·양평군/한나라당/국회 문광위원회 감사위원)은 신경립 시인의 '농무'를, 천영세 의원(비례대표/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위원단대표)은 김남주 번역의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국민의 시 대상 수상자인 이근자 님은 공모작품인 '선창'을, 화천문화원장이며 시인 조규영 원장은 자작시 '파로호'를 낭송하였다.

특별출연으로 나온 이시형 박사(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는 김소월의 '가는 길'을 낭송하고, 시인이며 시 낭송가인 장충렬 님은 권용태 시인의 '여의도 관찰'을 낭송한 데 이어 이광수패의 사물놀이로 '제2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의 흥겨운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다.



■시낭송자

황금찬 시인
 김원웅 국회의원
 김학원 국회의원
 문병란 전국문화원연합회 광주시지회장
 김남조 시인
 박찬숙 국회의원
 서오근 무안문화원장
 목순옥 수필가
 강지원 변호사
 심재덕 국회의원
 이근배 시인
 이상호 국회의원
 이요섭 국회사사랑회 회원
 이낙연 국회의원
 민 영 시인
 이미경 국회의원
 성기조 시인
 정병국 국회의원
 신달자 시인
 천영세 국회의원
 이근자 국민의시 공모작품대상 수상자
 조규영 화천문화원장
 이시형 박사
 장충렬 시인



시심이 흐르는 국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국회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이 지난 11월 18일 이른 저녁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2004년 11월 현재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221개에 이른다. 이 단체를 통합 조정하는 기관이 전국문화원연합회이다.

이 분들이 민족의 정서를 한 끈으로 묶어 보려고 국회의원과 시단을 이끌어 온 원로시인에게 청을 넣어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이라는 문화행사를 국회에서 가졌다.

“부디 오늘 이 시간만은 미움도, 원망도, 지역도, 당파도, 그리고 세속의 모든 고뇌도 다 벗어놓고 그저 시심 속에만 깊이 묻혀 아름다운 가을밤을 일구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한 국회의장님의 격려사와 “국회의원들께서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원로시인 및 국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시심을 나누는 일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뜻 깊은 자리라 여겨져 더욱 아름다운 밤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전국문화원연합회장님의 인사말에서처럼 그야말로 화기에애한 가운데 아홉분의 선량과 여섯분의 원로시인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의 인사 10여 분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모신 이 날의 잔치에는 전국에서 모인 문화가족이 참으로 즐거운 한 때를 공유할 수 있었다.

팔순의 원로 황금찬 시인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자작시 ‘등대지기’를 낭송했다.
- 밤이면 등대의 불을 밝히고 / 비가 오는 낮 / 안개 덮인 때 / 긴 고동을 울리며 / 배들이 무사히 / 귀향하기를 마음으로 빈다 - 며, 묵묵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등대를 예찬했다. 그리고 희수의 김남조 시인은 자작시 ‘사랑과 동참으로’에서,
- 시대의 불행이 지평에까지 / 줄지어 닿았다 한들 / 우리의 시력은 / 더 다른 좋은 것을 함께 보느니 - 라고 화해의 손짓을 했다.

지방문화원 원장이자 시인인 조영규님은 자작시 ‘파라호’

에서, - 허리에 맨 띠치고는 가장 아픈 허리띠 휴전선 - 이라, 남북 분단의 아픔을 절규했고, 심재덕 의원님은 천상병 시인이 좋아 그의 시 ‘귀천’을 읊었다.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다소곳한 몸가짐과 차분한 낭송은 시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고, 그리하여 시 ‘귀천’은 더욱 아름다웠다.

박찬숙 의원님은 김남조의 시 ‘이십세기’를 품고 나와, 오랜만에 만난 남다른 인연의 은사 앞에서 웅이라도 부리듯 그의 특유의 톤으로 낭송의 진수를 보였다. - 나는 이십세기를 사랑한다 / 결혼처럼 운명적으로 만나 / 삶이라는 교육이 시작되었고 / 전쟁과 죽음의 홍역 밭에서 / 순열한 연모와 삶의 존귀를 일깨웠다 - 하였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이사장인 성기조님은 자작시 ‘꽃밭’을 읊어, - 종일토록 구름이 / 흐르다가 / 코스모스 큰 대궁에 걸려 / 마른 잎과 속삭인다 -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시 공모작품 대상 수상자’ 이근자님은 영육의 혼신으로 수상시 ‘선창’을 낭송하여 장내 분위기를 남덩이처럼 가라앉게 했다. - 사투리에 갯펄이 묻혀있다 / 가서는 돌아올 수 없는 / 바람이 떼지어 잠들고 있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이자 시인인 권용태님은 자작시 ‘여의도 관찰’에서, - 한 해의 끝자락을 붙들고 / 처음 만났던 때의 / 설레임으로 빛났던 / 여의도의 바람은 / 한 곳에 머물기만 했네 -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뜻하지 않게도, 수십 년 전에 안면을 익혔던 ‘사물놀이’의 원조 이광수 상쇠를 만날 수 있어 참으로 기뻐다. 국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은 이처럼 백성의 함성이 화음(和音)으로 정화되는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김영탁 | 교육인적자원부 국편사료위원

시인의 손에 이끌려 “詩 속을 거닐다”

시에는 감동, 그림은 아름다움, 노랜 부드러운 선율이 있다면 시를 낭송한다는 것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요리가 아닐까 한다.

가슴에 사막만 남아도 시인은 아름다워라.

낭송시를 들을 때마다 활자로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시를 낭송하는 이의 마음이 강약의 리듬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시 낭송 며칠 전에 김남조 시인을 뵈는 적이 있다. 그때 시인께서는 나이 칠순을 넘기다 보니 가슴에 사막만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순간 뼈까지 뭉클했었다. 그러나 시인의 가슴엔 사막이 남아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남조 시인은 건조한 음성으로 ‘사랑의 동참으로’를 낭송하셨다. 바이올린 소리를 넘지 않는 시인의 음성은 시를 낙타로 동행하니 사막 한 가운데서조차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있었다.

이낙연 의원의 ‘국토 서시’를 들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낭송의 여운에 깊은 잠을 이루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의원의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깊은지, 마치 평생을 시만 품은 사람처럼 울리는 발성의 안정감과 함께 정확한 발음의 속도까지... 낭송이 끝났을 때는 ‘아! 시낭송집이라도 하나 내 주시지’ 하는 안타까움이 절로 흘러나오고 말았다.

이근배 시인과 이상호 의원, 이근자 시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이근배 시인은 유신시대에 쓴 소리 소개하며 ‘잔’을 낭송했는데 시인의 감동이 빈잔에 방울 방울 채워지는 듯. 눈을 감지 않아도 허공에 울고 있는 게 보였다.

또한 ‘저문 강에 삼을 씻고’를 낭송한 이상호 의원은 이근배 시인과 다른 느낌을 주었는데, 마치 한 농부를 관음하듯 시어가 선명한 색채로 움직였다. 색채의 생명력은 끝내 노인을 쓸쓸히 떠나보냈고 흐르는 강엔 나 홀로 남아 발끝의

서러움을 툭툭 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시, 음악, 목소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조화를 보여 준 이근자 시인은 ‘선창’을 낭독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접하는 시였다.

시인은 마치 듣는 자를 산책에 동반하듯 시를 낭송했고, 시인을 따라 걷는 길은 표현할 수 없는 꿈같은 산책로였다.

시 속을 거니는 행복이란 말로 다다를 수 없는 파라다이스였다고 할까.

시인과 의원님들의

낭송, 낭송, 낭송.

이를 듣는 관객의

갈채, 갈채, 갈채.

살풀이와 경기민요, 신명나는 사물놀이.

이날 행사에서는 강지원 변호사께서 ‘청산에 살리라’를 열창해 주셨다. 사람들이 앵콜을 외치자 강지원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선구자’를 열창했고 이에 박수와 환호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시형 박사도 김소월의 ‘가는 길’을 낭송했고, 박사의 포근한 목소리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은경 씨의 살풀이 공연과 최윤영 씨의 경기민요를 들을 수 있었고 무대의 마지막은 이광수패의 사물놀리로 시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시상에 너무 젖어 있어 그런지 흥겨운 사물가락에도 어깨 하나 들쭉이는 사람이 없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박수를 치고 어깨를 들쭉이며 ‘얼췌’를 외치는 흥겨운 장소가 되었다.

(이 글은 국회보 2004년 12월호에서 전재한 글입니다)

홍석미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민족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를 발굴해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로
대상을 수상한 **강만익 제주공고 교사**

제주전통문화의 키워드 ‘공동목장’

민족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를 발굴해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 향토문화 공모전’이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이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이다. 제주공고 강만익 교사가 쓴 이 논문은 제주도 향토문화의 색깔이 잘 드러난 수작이다. 강만익 교사의 향토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논문 수상 소감을 들어보았다.

“제주도 지역의 연구논문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만익 교사는 대상 수상의 기쁨을 피력하기도 전에 먼저 제주도 향토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말로 첫마디를 대신했다. 강교사가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에서 언급한 공동목장이란 무엇일까? “공동목장은 오직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목장제도로써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장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우마를 방목했던 목축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마을 공동목장에는 목장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규약준칙, 경비징수, 분부방법준칙, 평의원회 회록 등의 자료가 남겨져 있다. 강교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공동목장을 연구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강교사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됐다. 여기에는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협동정신, 다양한 목축방법과 각종 목축관련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

강교사는 원래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에 관심이 높았다. 대학시절부터 10여년 넘게 중산간 초지대(해발 200~600m)에서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01년 8월에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라는 석사논문이 제주대학교에서 첫 번째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목장을 다룬 연구 논문이 거의 없어서 의욕만 있었던 차에 일제강점기의 공동목장에 대한 자료를 우연한 기회에 구할 수 있었다.

“2002년 8월 저는 제주도 한림읍 명월마을의 <명월향토지> 집필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명월마을이 보관하고 있었던 고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문서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었던 공동목장에 대한 문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강교사에게 논문 집필의 큰 계기가 된다.

“이는 한자와 일본어로 돼있어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매우 귀중한 문서였어요. 그래서 마을의 동의를 얻어 문서전부를 한글로 번역한 후 이를 기본 자료로 해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논문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번 논문 집필을 계기로 강교사는 앞으로 2~3개의 논문을 더 쓸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일부 공동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안한 제주도 전체 82개 공동목장의 소유권 변동을 주제로 한 논문, 그 이후에는 조선시대 국영목장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공동목장까지 연구결과를 모두 정리해 <제주도 목장경관의 형성과 변화>란 주제로 단행본을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제주도 향토문화의 뿌리는 ‘제주어’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특히 향토색 짙은 향토문화를 주제로 한 논문을 연속해서 집필중인 강교사가 바라보는 향토문화관은 무엇일까?

“향토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

치관이 혼란스럽고 미풍양속이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향토문화에는 담겨있다고 봐요.”

강교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소장학자들이 앞장서 향토문화를 발굴, 연구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제주도 향토문화에 대한 강교사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가 말하는 제주도의 향토문화는 독특한 ‘제주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전국에 여러 방언이 남아있지만 제주어 만큼 지역색이 강한 언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육지부(한반도)와는 격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육지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향토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로문화와 잠수(해녀)문화 그리고 목동(테우리)들에 의해 중산간 초원지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목축문화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바람에 의한 스트레스가 강한 기후환경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지붕경사가 완만하고 용마루가 없는 전통가옥과 거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무속신앙으로서 당(堂)이 마을마다 만

들어졌다는 점을 제주도 향토문화의 특징으로 들 수 있어요.”

학생들과 제주지역 문화역사유적지 탐방

강교사는 제주시에 위치한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0여년 동안 사회(지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서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특별활동반으로 만들어진 <지리답사반> 학생들과 함께 제주 고장의 문화역사유적지를 찾아서 문화유산에 담겨진 의미와 가치를 함께 배우고 있다. “저도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함께 목장 구경을 가거나 제주도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인 오름(소규모 화산체)을 찾아 제주의 자연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모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떠난 삼양선사유적지(왼쪽)와 연복정(오른쪽)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무협소설, 환타지소설,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이 향토문화 자체에 대한 시각도 현대사회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다. 이런 풍토개선에 대해 현직교사인 강교사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향토문화 교실을 개설해 청소년들에게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유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단위에서 각 문화원들이 주도적으로 청소년 향토문화 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강교사는 향토문화 교육을 정규교과 시간으로 편성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향토문화 교육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향토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교육시키는 구체적인 교육방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대학입시를 이유로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고교교육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향토문화와 맥을 함께하는 전통문화도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통문화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전

통문화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우리가 계승할 만한 문화가 있는 반면에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문화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승해야 할 문화와 버려야 할 문화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교사는 이러한 구분은 향토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서양문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토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이지요.”

이번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강교사는 목표를 더욱 구체적으로 잡았다. 먼저 환경단체와 문화유산해설사회, 탐라문화보존회, 제주마문화연구소, 제주문화원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

또한 공동목장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직접 공동목장의 흔적이 잘 남아있는 장소를 선정해 답사를 안내하면서 공동목장에 형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를 해설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공동목장의 실태를 연구하며 향토문화 발굴에 애쓰고 있는 강교사의 분투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취재 _ 김준호 기자

사진(40P) _ 전명한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가창오리떼의 군무

초겨울 저녁

비행기 동체처럼

하늘을

새까맣게

수놓은

가창오리떼들의 군무(郡舞)가

고향집을 그림게 합니다.

• 사진은 군산시가 국제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금강호 일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2004 군산세계철새관광 페스티벌'의 한 장면. 사진협조 : 군산시

한복,

거추장스럽다고 하기엔

산과 바다를 닮은 너무나 고운 빛깔과
마주치듯 감싸안은

직선과 곡선의 어울림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이다. 이 전통의상의 질감은 매우 부드럽고, 시선을 어지럽히지 않는 형형색색의 빛깔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한복의 질감과 빛깔은 한국의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한복에는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빚어내는 풍경과 산수, 그 속에서 오랜 세월 어울리며 살아왔던 선조들의 슬기와 마음씨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옷이 그렇지만, 한복은 특히 '선' (線)이 살아있는 옷이다. 한복에서 이 선은 결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며, 입는 자로 하여금 '격'을 세워주는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복의 선은 주로 직선과 곡선인데, 이 선들은 함부로 까불지 않을뿐더러 날카롭게 교차하지도 않는다. 한복의 선은 한복의 부분과 전체에서 완만하게 굽이치며 흘러간다. 그런 점에서, 한복의 직선과 곡선이 빚어내는 화음은 일정부분 선조들의 생활윤리가 투영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만하지만 군더더기가 없는 한복의 수많은 선들은 한옥의 지붕과 처마의 아름다운 선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중에 새겨진 한옥의 지붕과 처마의 둥근 선들은 하늘로 올라갈 듯하면서도 땅으로 내려오고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드는데, 한복에는 그런 절묘한 어울림이 살아있다. 즉,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전통 한복의 주재료는 목화, 삼, 모시, 누에고치

전통한복은 목화, 삼, 모시풀, 누에고치에서 재료를 뽑아 올린다. 목화에서는 무명옷을, 삼에서는 삼베옷을, 모시풀에서는 모시옷을, 누에고치에서는 비단옷을 각각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을 재료로 삼아 만든 옷들은 요즘의 화학제품을 재료로 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력과 통풍 역시 뛰어나다. 실생활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몸의 동작 하나하나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에 넉넉한 것이다.

한복의 종류는 다양하다. 과거 한복은 나이, 성별, 신분, 계절, 행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모양을 달리했다. 평상복은 활동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지만 예복은 화려하고 장중한 맛이 있다. 특히 관례복은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 행사에 따라서 달리 착용했다. 조선왕조시대를 살펴보자.

조선왕조시대 백관복에는 조복(문무백관이 나라의 큰 행사 때 입던 관복으로 대사, 경축일, 원단, 동지 및 조칙을 반포할 때 입었다), 제복(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입었던 옷), 공복(재외 문무관이 공사와 사은 관계로 배알할 때 입었던 옷), 상복(평소 직무를 볼 때 입었던 옷)이 있었으며, 유사시 몸을 날렵하게 하기 위하여 용복(戎服)도 착용했다.

한복의 구성 요소 역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각색이다. 저고리, 장옷, 두루마기, 조끼, 바지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복의 기본 품목들이지만, 공단 조바위나 풍차바지, 쓰개치마 등 쓰임새에 따라 독특한 이름과 모양을 가진 것들이 많다. 이 글에서 예로 든 공단 조바위는 외출 시 머리에 쓰던 여자 아이의 방한모자를 일컫는데, 아얌(귀를 내놓고 이마만 덮게 되어 있는 방한모의 하나)과 비슷하나 귀와 뺨을 가리는 것이 특징이며 윗부분은 트여 있고 남자머리가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풍차바지는 신생아 시기가 지나서 스스로 용변을 가릴 수 있는 네다섯 살 때까지 남녀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말한다.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터지게 양쪽 마루푼에 밑을 각각 달고 양편에는 두 개의 끈을 달아 뒤에서 여민 다음 그 끈을 앞으로 모아서 매어 주도록 했다. 풍차바지는 무명이나 명주를 염색해서 만들기도 했으며, 겨울에는 터진 부분에서 새어 들어오는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얇은 솜을 두기도 했다.



한복의 생활화는 가능할 것인가



한복의 멋스러움은 외국인들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설과 추석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고 있다. 한복의 쓰임새가 ‘행사용’으로 제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같이 ‘스피드’ 한 시대에 어딘가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한복에 깃든 아름다운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복의 멋을 살려가며 기능성을 강조한 개량 한복들이 출시되고, 차츰 수요를 늘려가는 것은 더없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읽혀진다.

한복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문화의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한복에 깃든 그런 문화를 살려가며 세계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특별한 날’ 외에도 한복 입는 횟수를 늘려가며 한복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문화 지키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국내성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 살림집은 물론 아파트를 순식간에 헐어 냈는가 하면,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루의 왕궁 복원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들 유적을 발굴·복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것 때문이다. 도대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그토록 열을 올리는 것일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뭐 길래

‘동명왕릉’ ‘강서대묘’ ‘쌍기둥무덤(쌍영총)’ ‘약수리 무덤’ ‘수산리무덤’의 벽화와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태왕릉과 광개토대왕릉비’ ‘장군총’ ‘오희분’ ‘무용총’ 등이 올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모두 우리 조상인 고구려인들이 남긴 소중한 고고 가치 높은 문화유산이지만 오녀산성·국내성·환도산성·태왕릉과 광개토대왕릉비·장군총·오희분·무용총 등의 문화재들은 지금은 중국의 영토에 있는 문화재들이기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

중국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국내성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 살림집은 물론 아파트를 순식간에 헐어 냈는가 하면,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의 왕궁 복원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들 유적을 발굴·복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것 때문이다. 도대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그토록 열을 올리는 것일까?



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것일까?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확하다. 겉으로는 유네스코로부터 유적 보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대상 유적지를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고, 속으로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들을 중국의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제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그 역사까지도 중국 속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인을 자처하는 서구중심의 사고로 재평가한다는 것이, 또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한심하다고 웃어넘기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는 기막힌 홍보 효과를 보장한다는 데 침 흘리지 않을 도시나 지자체가 어디 있겠는가?

유네스코에서 등재하는 세계유산들

유네스코는 우선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장르를 분류하여 유형의 문화재 목록을 등재하기 시작했다. 문화유산은 유적이거나 건축물 등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세계인이 깜짝 놀란 만한 빼어난 자연 풍경을 가진 곳이나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을 말하고,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가까이서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창덕궁이나 종묘 수원화성 같은 유적지는 문화유산이



며, 설악산이나 제주도에서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나 남해안 공룡알 화석지 등은 자연유산이다. 복합유산은 우리 나라에는 아직 그 예가 없지만 굳이 다른 나라를 통해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많은 문화적 유산이 함께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중국의 태산이나 황산 정도를 들 수 있겠다.

2004년 현재 129개국 총 754곳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 있는데 이를 세분하면 문화유산 582곳, 자연유산 149곳, 복합유산 23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유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세계기록유산>과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결작>이라는 항목도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무형유산

세계유산에 이어 세계 기록유산도 목록으로 등재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값진 소장문서로서 그 유형에는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기록 자료,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

이터 등이 포함 된다' 라고 기록유산의 정의와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뛰어난 인쇄술 나라답게 우리 나라도 4개의 기록유산이 등록되어 있다.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에 이어 1998년에는 인류 구전 및 세계무형유산결작 제도가 만들어졌다. 무형유산결작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결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의식, 습관, 공예, 건축, 기타 예술 형태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001년 1차 심사를 거쳐 2002년에는 19개국에서 19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2003년에 제2차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2개의 세계무형유산결작으로 등록되었다.

우리 나라의 세계문화유산 · 세계기록유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리고 몇 개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선 문화유산이 중심이 되는 세계유산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문화유산 중 가장 처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대장경판>, <종묘>이다. 독특한 건축양식과 건축미, 자연환경을 이용한 과학적인 건축술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19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독특한 조형미와 동서양의 장점을 부각시킨 다양한 건축술을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2000년에는 천년 이상을 이어온 신라 왕조의 수도로 많은 유물과 기념물이 산재해 있는 <경주역사유적지구>(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사시대의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선사시대 돌무덤인 <고인돌유적지>(고창고인돌유적, 화순고인돌유적, 강화고인돌유적)가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으로는 1997년에 처음으로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등재되었는데 훈민정음은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점과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하여 문자를 만든 원리와 문자사용에 대한 설명을 완벽한 이론으로 나타낸 점을 매우 높게 평가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은 472년간 한 왕조의 유구한 역사를 세계

에서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하였다는 점과 그 내용의 가치는 물론 한국 인쇄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2001년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과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이용된 세계 최대의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승정원일기>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세계무형유산 결작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세계무형유산 결작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제례의식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2001년에 등재되었으며, 우리 역사와 시대적 정서를 독창적인 예술형식으로 표현한 <판소리>가 2003년에 등재되었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종묘라는 특수하고도 상징적인 건축공간에서 행해지는 의례와 음



악으로 장엄하고고도 정제된 동양적인 종합예술의 정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 승화되어 독창성을 이룬 것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 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 목록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임시로 등록되어 있거나 후보에 들어있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려있는 유산들도 있는데 <삼년산성>, <공주무령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등이다.

이들 중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해남·보성·화순·여수로 이어지는 남해안 일대는 세계유산 중 세계자연유산 등록 대상인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몇 해 전 주민들의 반대와 준비 부족으로 신청을 했다가 신청서를 철회한 적이 있으며, 제주도 자연유산 지구는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아직 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 목록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임시로 등록되어 있거나 후보에 들어있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려있는 유산들도 있는데 <삼년산성>, <공주무령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등이다.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등재된 것만을 우수한 문화재처럼 취급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문화재라고 하여 폄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원형이 되고 참 가치가 되는 문화재를 유네스코에서 몰라준다고, 그들의 가치척도와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세계유산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이로운 게 못된다.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우리 곁에 어떤 소중한 문화재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다. 즉 세계가 사랑하는 세계유산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내용물 뿐 만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제도와 형식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0월, 2004 서울 세계박물관대회(ICOM)에 참석차 내한한 자크 페로 ICOM 회장은 자연 재해나 전쟁 및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ICOM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물을 비롯해 ‘100가지 잃어버린 유물’ 목록을 작성해 전 세계에 배포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편에 이어 최근 이라크의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리스트(red list)를 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뿌리내리고, 그런 마음 바탕위에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국가, 나아가 문화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서는 국가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리랑상’과 ‘세종대왕상’의 의미

이들 세계유산 중에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항목은 <세계기록유산>과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다. 두 세계유산 항목이 바로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두 유산의 목록을 유네스코가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두 분야에 연관지어 유네스코가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 있는데 바로 ‘아리랑상’과 ‘세종대왕상’이다.

‘아리랑상’은 1988년 11월 채택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제도’에 따라 세계의 구전구비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민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만든 것이며, ‘세종대왕상’은 새 문자를 만들고 이를 널리 쓰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편리를 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열을 기려 해마다 문맹퇴치에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이름들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타자기

‘훈맹정음’을 아시나요?

‘훈민정음’은 익히 알고 있지만 ‘훈맹정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를 다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점자 운운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훈맹정음이 곧 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것이다. 미리 말하면, ‘훈맹정음(訓盲正音)’은 점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눈이 건강한 일반 사람들에게 훈민정음을 기초로 한 한글이 있다면 눈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훈민정음에 버금가는 점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자는 시각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고 눈이다. 손끝으로 울룩불룩한 점들을 더듬어가며 세상을 읽고 세상을 적어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며, 세상의 일들을 당겨오고 세상과 호흡하며, 세상의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다. 오직 손끝의 감각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모든 궁금한 것들은 마음속으로 들고 난다.

6개의 점으로 글자 표현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개의 점형이 한 칸으로 연결되어 온갖 단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6개의 점형으로 모든 글자를 표현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점형이 복수의 의미를 갖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점자의 의미와 체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점자의 세계가 진정으로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는 훈련쯤은 감내해야 한다.) 모든 점자는 쓰기도 하고 당연히 읽기도 한다. 점자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자 도구인 점자판과 점자타자기가 필요하다. 점자판과 점자타자기는 종이와 필기도구,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점자판이 고전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점자를 쓰는 데 필요한 도구라면 점자 타자기는 ‘스피디한 시대’에 어울릴 만한 점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프로그램이 속속 선을 보여 점자판이나 점자 타자기의 효용 가치가 한결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점자 타자기가 개발됐을 당시에,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점자 타자기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와 생각들을 적어낼 수 있는 더 없이 유용한 도구였을 것이다.

두 눈이 건강한 일반 사람들에게 훈민정음을 기초로 한 한글이 있다면 눈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훈민정음에 버금가는 점자가 있다. 이렇듯 점자는 시각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고 눈이다. 손끝으로 울룩볼룩한 점들을 더듬어가며 세상을 읽고 세상을 적어낸다.



일반 타자기처럼 ‘타다닥’ 소리 나

잘 알려져 있듯이, 점자 타자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의사이자 한글 사랑과 한글 기계화 운동에 평생을 몸 바친 공병우 박사의 발명품이다. 공병우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글의 기계화 작업은 물론이거니와 점자 타자기 역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1971년 개발된 점자 타자기는 일반적으로 쓰였던 묵자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글쇠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묵자 타자기가 여러 개의 글쇠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글쇠를 눌러가며 해당하는 글자를 찍듯이, 점자 타자기 역시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6개의 글쇠를 갖고 있다. 다만 묵자 타자기와 다른 점이라면, 나타내려고 하는 점형에 해당하는 글쇠를 동시에 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묵자 타자기의 자음과 모음과 받침에 해당하는 글쇠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나타내고자 하는 글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묵자 타자기의 ‘타다닥’ 하는 글쇠 소리는 점자 타자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점자 타자기를 두드릴 때도 ‘타다닥’ 소리는 난다.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자판에 연결된 글쇠가 튀어 오르면서 나는 이 소리는 어찌면 세상의 닫힌 문들을 열어젖히는 경쾌한 소리였을 것이다. 세상의 닫힌 문들이 열릴 때, 세상은 한결 따뜻해진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잇는 소리

세상의 밝은 빛들은 열린 문들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로 빛들이 들어올 때 서로에게로 나 있는 마음의 창은 환하게 밝은 빛을 내건다. 마음의 창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도록 하는 힘이다. 점자 타자기를 놓고 보면 그 힘은 글쇠에서 나온다. 글쇠가 한번 일어설 때마다, 글쇠 끝에 달린 점자들은 닫힌 세상을 향해 솟아오른다. 글쇠와 울룩볼룩한 점자와 그것들이 빚어내는 ‘타다닥’ 소리에는 분명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따뜻함이 들어있다. 이 따뜻함은 마음의 창을 환하게 밝혀 놓은 사람만이,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종결은 의장 권한이지만 찬·반 성숙할때까지 진행해야

vol_8
議長

의장이 되는 자

일반적인 문화원의 총회에서는 표준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또 원장이 유고시에는 직무대행 순서대로 대행한다.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원장은 ...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 원장의 유고 및 결위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 사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 개최일 전에 원장이 유고되었다면 이사회를 열어 원장의 유고에 따라 최연장자인 부원장 또는 최연장자

인 이사 누구를 제멋차 정기(임시)총회의 의장으로 할 것임을 의결해 두고 총회에서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원장 등의 유고 사실을 알리고 의장직을 수행한다. 총회 개최일에 원장 등이 유고되었다면 최선택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장 직무대행을 의결해 두는 것이고 차선택으로는 차직무대행자의 순서에 있는 임원이 의장을 맡는다. 이 때도 별도의 의장 선출 절차 없이 유고 사실을 알린 후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법에서는 의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부의장은 “의장직무대리”,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선

출된 의장직무대행은 “임시의장”, 의장·부의장 선거를 행할 때와 같이 최연장자의 의장직무대행은 “의장직무대행”이라 한다. 국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을 뿐 문화원처럼 차순위자인 이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장·부의장의 유고시에는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문화원에서는 원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최연장자 부원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면 “의장직무대리”, 원장의 유고시에 최연장자인 부원장이 총회 의장을 맡는다면 “의장”이라 해도 무방하고 원장·부원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 결의로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정하면 이도 “의장”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총회개최일 개최시간이 임박해서도 의장을 맡을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회의의 관례상 임시 의장을 선출하는 사회를 맡을 회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최연장자 순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먼저 총회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사회를 맡을 최연장자 순의 책임자가 선출되면 이 회원은 “의장직무대행”이 된다. 의장직무대행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사봉을 임시의장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 임시의장에 선출된 회원은 실질적인 의장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시의장은 새로운 원장이 선출되면 의사봉을 넘겨주는 데까지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새로운 원장이 임시의장에게 계속 사회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회를 계속할 수 있다.

총회소집의 특례

■ 표준정관 제22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나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감사가 제18조 4항 3·4호 ‘본원의 재무상태·이사회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에 의해 총회, 이

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할 경우 원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원장이 이에 응할 경우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그러나 총회의 소집권자인 원장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는 소집요구권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한다.

의장의 권한과 책무

- 총회 의사진행의 지휘
- 회의진행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사회(司會)할 의무
- 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의 보유
- 개회를 선언하는 권한
-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인이나 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일
- 회원의 발언을 골고루 허가하는 일
-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는 회원의 발언을 금지하는 일
- 회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거나 담당임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일
- 총회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하는 일.
-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발언 시간 및 발언 횟수를 제한하는 일

- 발언자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2인에게만 각 3분씩 발언을 주고 토론을 끝내겠다”, “한 의제에 1인의 발언권은 1회만 허용하겠다” 등

- 질서유지가 필요할 경우 경찰력을 요청하는 일
- 정회를 선언하는 일
- 속개를 선언하는 일
-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결의를 채택하는 일
- 폐회를 선언하는 일
-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하는 일

의장은 항상 의사진행 절차의 대강을 점검

■ 첫째, 의안의 상정여부를 확인한다. 상정하지 않은 의안은 심의할 수 없다. 의안상정은 의장이 한다. 독립된 의안은 하나씩 상정한다. 그러나 의안의 성격이나 내용이 상호관련성이 있고 의결정족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동시 상정하여 병합 심의할 수 있다. 총회가 질서 없이 의제외발언이 속출하게 되면 의제에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에 빠진다. 이때는 의안과 관련 없는 발언은 의제외 발언임을 상기시키고 해당 의안이 상정되면 발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 보고사항 관련 질문도중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 발언을 하는 회원의 의견이 심도가 있다면 발언을 중지시키고 “지금 실질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간 것 같은데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의안을 상정하고 발언권을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회



원들에게 동의(同意)를 얻은 후 총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둘째**, 제안설명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설명은 의장이 직접 하거나 관련 이사 또는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에게 지시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을 제외한 제안설명자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답변토록 한다. 의장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의장이 답변하는 것이 전체 진행을 위해 좋다. 이 때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원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또 회원의 동의(動議)와 재청이 나오면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없으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위 동의를 넣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받아야 하는데 회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발언을 허용하고 그 내

용이 회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동의면 받아들이고 다른 내용이면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제안설명을 계속한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제안설명 도중의 질문은 회의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기회를 줄 것을 약속하고 양해를 구한다.

■**셋째**, 토론, 질의응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상 회원이 다수 모인 총회에서는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통과와 당위성을 말한 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회원의 발언으로 재청이 이어지고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오랜 관례이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 추세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은 의장의 의사정리 능력이나 사전조정 능력에 달려 있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발언할 의사가 없는 회원들에게 계속 발언할 것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침묵은 예스”라는 로

마 격언이 아직 진리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정관의 정신을 따른다면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집행부가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장은 어느 한 회원이 말을 잘 하고 생각이 깊다고 해서 다른 발언 요청자가 있는데도 발언권을 계속 주어서는 안되고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골고루 발언권을 준다는 이 원칙은 역으로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장황한 회원을 통제할 수도 있어 의장의 의사진행 솜씨를 한결 돋보이게 한다. 회원들의 질문은 찬반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안전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는데 그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총회 종료 후 따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의사



진행이 될 것이며 중요한 의안심의시에 이의유무를 물었을 때 손을 들어 발언권을 행사한 회원의 발언 내용이 위와 같을 때는 “발언의 취지가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시지요?”하고 물어 “그렇다”고 하면 “원안의 승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의사를 진행하면 된다.

■ 토론의 종결은 의장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한 의안에 찬성토론이 들어왔다고 하면 반대토론할 회원이 있는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이다. 회원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를 들어왔을 때에는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그 종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주주의 질문에 대한 것(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9조)

- 주주의 질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 ①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 ②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 ③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④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 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정 임원에 대하여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자는 의장이 결정
- 감사에 대한 질문은 상호 협의하여 답변한다. 답변 중이라도 의장이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넷째**, 동의(動議)와 재청(再請, 三請, 贊成합니다, 同意합니다, 좋습니다 등)을 잘 점검한다. 대개 순조로운 총회는 회원의 통과 동의나 승인 동의만으로 발언이 끝나고 재청-표결로 넘어간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회원들이 있거나 세력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원안에 대

한 통과동의와 다른 동의들이 나오는데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긴급동의” 형식으로 동의하는 것은 소집절차상의 위반이므로 바로 각하를 시키면 되지만 집행부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수정동의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동의가 나오면 거기에 재청(再請)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청이 있으면 수정동의로 받아들이고 없으면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다면 통과 동의(動議)와 재청(再請) 절차는 사실상 필요 없고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바로 들어가면 된다.

■ **다섯째**, 표결(表決)에 들어간다. (우리문화 2004년 5·6·7·8호 참조)

■ 반대/기권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총회장에 참석하여 반대/기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반대/기권이 되지 않는다. 그 책임은 대리인



에게 있다.

■ **여섯째**, 표결결과를 선포한다. 그리고 다음 의안을 상정한다.

■ 이러한 순서는 총회의 폐회를 선포할 때까지 의장 자신이 계속 점검해야만 한다. 발언내용에 신경을 쓰다보면 동의를 나왔는지 혹은 다음에 저 발언이 끝나면 어떤 절차로 들어가야 할지를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점검해야 하자 없는 총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회의체의 존재가치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한번 의결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과 정관을 위배하거나 문화원의 범위를 넘어선 결의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 중에서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문화원의 위상과 목적의 위배, 명예 손상,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의장은 회순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이럴 때는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총회의 결의로 결의취소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소집절차상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법률적인 쟁송이 충분히 예견되는 실수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의장 불신임 동의에 대한 대처

의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의장은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다만,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 때에는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다고 총회의 결의로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의 유고시에 정한 직무대행 순서로 의

장을 맡고 이사의 전원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어떤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까지는 관계없으나, 그로 인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정회(停會)의 경우

일반적인 총회에서는 잠시 쉬거나 임원들간에 상의할 일이 있어 정회를 할 경우는 굳이 회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또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한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총회에서는 정회 선포도 신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해서는 안되고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례-일반적 의장의 권한과 불공정한 정회의 선포

의장의 사회권의 포기후 회원들이 임시의를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 한 사례가 있다. 이것도 유효하다.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퇴장한 것은 폐회나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의장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판례)

참고-연기(延期)와 속행(續行) (상법 제372조 제1항)

연기 : 총회를 열어 의사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의사에 들어갔으나 이를 철회하고 별도의 날을 정하여 총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경우에 이를 연기결의라고 함.

속행 : 총회를 열어 의안심의를 하다가 의사를 중지하고 다른 날을 정하여 총

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한 경우에 이를 속행결의라 한다.(1일 1차, 차수의 변경, 의사진행이 불가능)

일단 총회 성립 후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소집의 철회·변경과 상이함. 총회의 연기·속행에 따라 후일 다시 열리는 총회를 연회(延會)·계속회(繼續會)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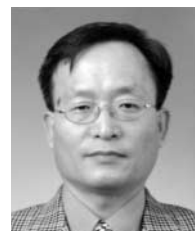
연회 또는 계속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결의가 이루어진 날에 발생(당초의 회의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이어야 한다.(코스닥등록법인 표준 총회 운영규정 제34조)

연회와 계속회는 당초의 총회와 이어진 하나의 총회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연회·계속



회의 일시와 장소를 연기·속행의 결의시에 정하지 않고, 의장에게 일임한 때에는 출석했던 회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또한 당초 총회의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은 연회나 계속회에서도 당연히 대리권을 유지한다. 연기나 속행을 결의한 총회 당시의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이 참석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 속행의 결의를 할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유회(流會) 내지는 총회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



자문 _ 김점동|동우에쓰엔시 대표

‘춘천아가씨’ 소재 지역홍보 톡톡

소리문화인 음악엔 인생이 담겨있다. 노랫말 속에 삶이 녹아있고 멜로디는 희로애락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래엔 저마다 사연이 있고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에피소드와 비화들이 많다. 제목, 노랫말, 작곡, 작사, 취입에 이르기까지 재미난 뒷얘기들도 적잖다.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특히 그렇다. <서울의 찬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의 눈물> 등 노래제목에 지명이 나오고 그 고장얘기들이 가사로 꿰어져 나온다. 저마다의 지명과 지역을 소재로 사연과 추억을 담은 노래들의 뒤안길을 따라가 본다. <편집자>

가수지망 18세 춘천아가씨 따라
소양강 놀러갔던 반야월 씨 작사
1969년 김태희 첫 취입 ‘대히트’
노래주인공 광주서 밤무대가수 활동

국민가요로 자리잡은 <소양강 처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로 잘 알려져 있다. 부르기 편한 곡조에다 쉬운 표현의 노랫말로 술자리모임, 노래방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다. 특히 청정지역 춘천시 소양강을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지역홍보에도 톡톡히 한몫 하는 가요다.

(1절)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열여덟 팔기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찌나
아-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2절) 동백꽃 피고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멎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나는 어찌나
아-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3절) 달뜨는 소양강에 조각배 띄워
사랑의 소야곡을 불러주던 님이시여
꽃가슴 언저리에 아롱진 눈물
얼룩져 번져나면 나는 나는 어찌나
아-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이 노래가 첫선을 보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69년 박정희 대통령시절이다. 마산출신 작사가 겸 가수인 반야월 선생(본명 박창오, 85)이 노랫말을, 이호 선생이 곡을 만든 노래로 여가수 김태희가 불러 히트했다.

4분의 2박자, 트로트풍인 이 노래는 호반의 도시 춘천과 소양강을 전국에 알리는 강원도 대표 홍보곡(?) 노릇을 해오고 있다. 춘천시가 최근 <소양강 처녀> 노래비를 소양댐 바로 아래 주차



장에 세운 것도 그같은 까닭에서다.

〈소양강 처녀〉엔 반 선생과 18살 춘천아가씨 사이에 얹혀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노래사연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중구 명보극장 앞 네거리에서 을지로 3가 방향으로 10여m 가다 보면 ‘한국가요반세기 가요작가동지회’란 사무실이 있었다. 김포공항 쪽의 등촌동으로 옮겨갔지만 그 땐 명보극장과 스카라극장 주변이 스카라계곡이라 불리며 영화·쇼·가요관계자들이 정담을 나눴던 곳이기도 하다.

그 작가동지회사무실엔 윤기순(尹基順)이란 18세 소녀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곳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가수의 화려한 꿈을 안고 서울로 온 강원도 출신의 가난한 집안 맏딸로 가사를 돕는데 책임이 큰 그런 처녀였다.

먼저 윤 양이 상경했을 때 얘기를 더듬어 보자. 반 선생이 한국가요작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춘천에서 온 한 소녀가 그를 찾아왔다. 소녀는 다소곳이 인사한 후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다. 나이는 18살, 고향은 춘천, 장래

희망은 가수였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서울에 왔다’며 음반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곁들였다. 그러나 반 선생은 고민스러웠다. 느닷없이 찾아온 소녀의 음악적 자질이나 능력이 어떨는지, 또 성장가능성은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까닭이다.

반 선생은 소녀의 집념이 워낙 강해 일단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배려했다. 자신도 경남 마산에서 올라와 고생했던 지방출신 음악인인지라 순박한 모습의 춘천소녀를 조건 없이 돕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 직원이 된 그녀는 성실히 일했고 가요작가 김종한 선생도 짬짬이 개인지도를 해주며 가수꿈의 한을 풀어주려고 힘썼다. 평소 교습비도 제대로 못 낸 윤기순은 노래공부를 하면서도 죄송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묘안을 냈다. 스승인 김종한 선생을 비롯, 회장인 반 선생과 작사가 고명기·류노완·월견초 선생 등을 소양강 상류의 고향집으로 초청한 것이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가수가 되기 위해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잘 보여

야한다’며 ‘극진히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려 승낙을 받아냈다.

일행은 날을 잡아 춘천으로 향했다. 윤 양의 고향집 아버지도 자기딸을 지도해주는 서울손님 맛을 준비를 했다. 그녀 부친은 소양강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 가는 소박한 어부였다. 윤 양 부모는 귀한 손님이 왔으며 민물고기매운 탕을 끓여내고 토종닭도 잡았다.

차게 몰아탔다. 그 때 천둥 번개가 쳤고 이에 놀란 윤 양은 ‘어머 무서워!’ 하면서 곁에 있던 반 선생 품속으로 달려가 안겼다. 반 선생과 소녀는 천둥 번개 덕분에 포옹(?)을 하게 됐고 일순간 짜릿함도 맛볼 수 있었다. 10여분 후 먹구름은 걷혔고 햇살이 비쳤다. 일행은 물으로 나와 젖은 옷을 말린 후 추억의 춘천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소양강변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윤 양은 반아월 선생에게 ‘회장님! 저기 조그만 갈대숲이 보이죠? 저기가면 경치도 좋고 놀기가 참 좋아요. 우리 저 섬으로 가요!’ 하고 청했다.

일행은 부근 섬으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다. 복잡한 서울생활에서 벗어난 일행은 푸른 소양강물에 가슴이 툭 터졌고 맑은 공기와 한잔 술에 취했다. 살랑 살랑 강바람이 불고 때마침 서산에 붉게 물든 황혼의 전경을 한 폭의 그림 그대로였다. 시상(詩想)이 절로 떠오르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일행이 섬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바람이 세

반 선생은 작사가인지라 그때 강변에서의 황혼과 18살 소녀, 저 멀리 보인 갈대밭 등이 좀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소양강에서의 잔상이 계속 맴돌자 그는 메모해뒀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다. 엉겁결에 일어난 18살 딸기 같은 춘천아가씨와의 소양강변 포옹 때 느꼈던 감정과 전경을 대중가요노랫말로 승화시켜 엮어낸 것이다.

이듬해인 1969년 봄 반 선생은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로 나가는 노래가사를 완성, 오아시스레코드를 찾았다. 레코드사에 신곡으로 쓰라며 내어주자 그 회사 문예부 상담역이었던 작곡가 이호 선생이 자기가

작곡한다고 자청했다. 노랫말이 마음에 들어서 인지 악상이 바로 떠오른 모양이었다. 노래부를 사람은 가수지망생 김태희(본명 박영옥)로 정해 졌고 편곡은 밀양출신 음악인으로 유명한 박시 춘 선생이 먼 친척 뻘 되는 김태희를 위해 힘을 쏟았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노래가 바로 <소양강 처녀> 다. 소양강 놀이 때의 전경이 잘 묘사돼 있고 18 살 춘천소녀의 소박하고 해맑은 순진함이 가사 에 듬뿍 담겨져 있다.

취입 때의 에피소드도 재미있다. 당시 LP음반 은 한 장엔 12곡의 노래가 담기는 유니버스 스타일이어서 10여명의 가수가 필요했다. 따라서 취입 후 어느 노래를 타이틀로 할 것인가 고민 할 수밖에 없었다. 레코드사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들려준 후 무기명투표로 결정기로 했다. 결과는 <소양강 처녀>였다.

음반이 나오고 방송을 타자 노래는 뒀다. 30만 장이상의 음반이 팔리는 등 크게 히트한 것이다. 게다가 소양강이 댐과 함께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후일담으로 김태희 아버지는 답례로 반 선생에게 양복을 선물했고 레코드사 엔 대박이 터졌다.

세월은 흘러 가수 김태희는 이렇다할 히트곡을

못 내고 인기대열에서 멀어져갔다. 그로부터 20 여 년이 지난 1992년 여가수 한수경이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된 <소양강 처녀>를 리메이크해 인기를 끌었다. 종래 없던 3절 가사를 넣은 노래 는 '노래방 최고인기곡' '가요 베스트10' 이 되기도 했다. 댄스곡으로 틀을 바꾼 한서경 노래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빠른 템포로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져 인기였다.

1995년 춘천시가 반야월 선생을 초청, 노래비와 소양강 소녀 동상건립자문을 구했다. 노래에 얹힌 사연과 실존인물 윤기순 일화를 여과 없이 들려줘 매스컴을 탔다.

노래덕분에 지하셋방에 살던 편곡자(강 모씨)가 집을 사고 작업실도 차릴 수 있었다는 뒷얘기와 노래주인공 행방도 흥미를 더해준다. 소양강변에 있었던 윤 양 집은 이사간지 오래돼 춘천시가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 찾아냈다. 경찰 컴퓨터 조회결과 그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의 꿈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취입곡 하나 없는 한 많은 50대 중반의 '무명가수 윤미라'로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윤기순과 소양강 처녀에 얹힌 사연은 KBS-TV <이것이 인생이다> 프로그래를 통해 방송,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자가수 _ 왕성상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 신문방송대학원(언론학 석사)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 지금껏 뛰고 있다. 특히 '남인수가요제' 우수상을 받아 한국언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순정> 등을 취입했고 각종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 wss4044@hanmail.net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 및 심포지엄

제1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 및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9일 오후2시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사)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가 주최한 가운데 전국문화원 연합회 대전시지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국 각지의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98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유일한 향토문화 공모전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향토사가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함께 향토문화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식민지 당국

의 정책으로 결성된 공동목장조합을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한 강만익(제주공고 사회교사)씨가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 참조)

대상 수상자에게는 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10개의 상에 총 1,7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지금까지 19년에 걸쳐 시행된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은 우리나라 향토문화의 보존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묵묵히 향토문화를 지키고 외롭지만 보람된 길을 걷고 있는 향토사가들의 연구욕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대회 첫회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상집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ccf.or.kr)에 접속하면 그동안의 수상작 160여편을 볼 수 있다.

2004년도 제2차 이사회

김준식(안동), 김태원(안성), 홍관표(김해) 원장 운영위원으로 위촉

12월 9일(목) 오전 11시부터 대전 유성문화원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지역특성화 문화발굴 육성 대토론회와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프로그램추진 실태 및 정부지원 예산 지자체로의 이관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고, 공식 중인 운영위원으로 김준식 안동문화원장, 김태원 안성문화원장, 홍관표 김해문화원장을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제1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자 명단

부 문	상 격	수상현황	상금
공 동	대상 (국무총리상)	강만익 (제주공업고등학교 사회교사)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400만원
향토문화 논문부문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이규상 (청원군청 문화공보과 공보계장) '淸原地域胎室'을 중심으로 한 胎室研究	250만원
	우수상 (국사편찬위원회장상)	송지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민속학전공) '남이장군대제' 축제의 활성화 방안	150만원
	우수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상)	정연수 (강릉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삼척 기차놀이 노래」 고찰	150만원
	장려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채무기 (경주문화원 사무국장) 統一新羅 雙塔 出現에 關한 異意	100만원
	장려상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장상)	성부제 (예산문화원 이사) 朝鮮時代 禮山地域과 插橋川流域의 越境地 調査研究	100만원
향토문화 자료부문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류금열 (前 문화재행정모니터요원)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勳績碑의 諸考察 -好太聖王과 關聯한 史料集成-	250만원
	우수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황의호 (대전여고 교감), 신재완 (대전고 교사), 황의천 (대전여고 교사) 보령 지역의 봉수대 연구	150만원
	장려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김연호 (제천 내제문화연구회) 문암영당의 고전적 정리와 해제	100만원
향토문화 공 로 상	공로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사단법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00만원



•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 장면

운영위원회

지방문화원
홍보계획 등 논의

12월 9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대전 유성문화원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수봉)를 열고 김준식·김태원·홍관표 원장 등 신규로 위촉된 세 명의 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방문화원의 홍보계획 수립을 비롯한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강화문화원장 남궁 신 씨 취임



강화문화원은 지난 9월 23일 오전 11시 당 문화원 회의실에서 가진 임시총회에서 5명의 원장 입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를 한

남궁 신(南宮 信 67세)씨가 선임되었으며, 11월 2일 오전 11시 강화읍 은송취폐 식당에서 많은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남궁 원장은 명지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강화군청과 삼양중·종합고에 재직했으며 2000년부터 강화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구례문화원 박하운 원장 별세

박하운(朴夏漣 · 67세) 구례문화원장이 12월 5일 오후 4시 자택에서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고인은 1957년 구례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문화방송국 보도부 기자를 거쳐 서울신문사 구례지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0년 9월부터 구례문화원 제11대 원장으로 문화사업에 헌신해 왔다.

‘문화관광의 눈’으로 본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원장:이영욱)은 12월 3일(금) 올림피아호텔(평창동) 별관 컨벤션홀에서 “문화관광의 눈으로 본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실천수단으로 부상한 문화관광산업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용 대부분이 지역문화를 키워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주제로, 그리고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이 “지역 문화관광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문화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 I(사회: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지역문화의 현실과 진단”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인 지역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

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광개발을 주제로 한 세션 II(사회: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역특성화 관광 발전”을 주제로 농산어촌과 지방도시 관광의 특성화 및 전문화 방안을, 세션 III(사회:박삼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지역문화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전통 및 첨단 문화산업의 클러스터 방안과 지역문화 혁신체계를 논의했다.

세션 IV(사회:최승담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는 “전략적 관광거점 개발방향”을 주제로 남해안관광벨트 등 광역관광권과 북한관광레저도시의 효율적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리학, 경제학, 경영학, 관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참석하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련 업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의 역할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출처:문화관광부)

이재수의 난 103주년 맞아 고교생·도민 등 역사순례기행

1901년 천주교의 제주 전래과정에서 천주교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횡포를 자행한 불랑천주교도들과 탐관오리를 몰아내기 위해 이재수를 중심으로 한 민병들이 무력으로 제주성을 점령하고 천주교도 300여명을 처형했던 신축년 제주항쟁(이재수난) 103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1901년 제주항쟁(이재수 난) 기념사업회(상임대표 송재호)는 제주항쟁 103주년을

기념해 ‘역사·문화의 땅 대정, 역사의 바람을 만나다’란 주제로 역사순례기행, 다규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17일부터 각 학교의 요청일정에 따라 대정지역의 역사·문화를 영상매체를 이용해 기행이전 사전교육 강의를 진행했고 이재수 실기 및 문학작품, 신축년 논문 등을 수록한 자료집 ‘신축항쟁 문학집’도 발간했다. (출처:뉴스1)

담양, 우리 동네 축제 만들기 워크숍

담양군은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대와 향유를 위해 우리 동네 축제 만들기 워크숍을 실시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복권위원회, (사)전국문화회관연합회 후원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각 읍면 축

제담당 공무원과 주민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기초강의와 워크숍, 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기능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출처:무등일보)

진주유등축제 ‘자치행정혁신’ 최우수상

경남 진주시가 제5회 자치경영혁신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지난 11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진주시는 “진주남강 유등축제 성공사례”를 발표해 문화관광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은 경북 안동시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공사례”가 수상했다.

남강유등축제는 주민 3만여명이 직접 참가해 소망등 등 1만7000여개를 다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이 주인이 된 축제에 인정받았으며, 축제 운영비중 절

반을 추진위가 수익으로 충당하는 등 자립축제의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된 축제로서 인정을 받았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447명에 비해 6배이상 증가한 2891명이 참관했으며 관광공사 등을 통한 공격적인 홍보 덕택에 156만명의 외지 관광객이 참관하는 등 지역축제의 틀을 벗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78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외국 바이어 초청을 통한 경제 외교의 장 등 생산적인 축제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뉴스시스)

전통문화 명맥 잇는 임실군 필봉농악보존회

전북 임실군의 필봉농악보존회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호남좌도 필봉농악’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1970년에 태동된 모임이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노력은 35년동안 무려 9만여명이 필봉농악을 전수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줬다. 1988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봉농악의 역사는 300년쯤으로 추정된다. 임실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교류가 원활치 못했다. 전통적인 마을 굿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을주민의 끈질긴 집념에 의해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던 필봉농악이 현재와 같은 수준높은 풍물 굿으로 발전한 것은 1900년대 좌도지역의 유명한 상쇠 박학삼을 필봉

마을로 초대하면서부터다. 그는 필봉마을로 이사한 뒤 풍물 굿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뒤를 송주호 상쇠가 이어받았다. 필봉 굿이 화려하게 꽃피운 것은 굿의 보유자로서 이름을 날린 양순용 선생때다. 현재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양진성씨(39)는 그의 아들로 대를 이어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다. 양씨와 함께 활동중인 보존회원은 정단원 52명과 준단원 7명 등이다.

필봉농악보존회는 가을걷이가 끝나면 마을을 돌며 축제를 벌이는데 올해는 지난 13일과 14일 필봉 굿 전수관 등에서 행사를 치렀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오래 존속시키고 있는 정월대보름굿은 각 지역 전

통문화 동호인들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커졌다.

1999년부터는 해외에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알리기 시작, 미국의 뉴욕·워싱턴·LA·샌프란시스코에서 강좌개설 및 공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년 11월 열리는 필봉 풍물 굿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허드잡이(잡색)가 많다는 것이다. 가락은 호허굿 가락, 채굿 가락, 도독잡이굿, 영산굿, 수박치기, 싸잡이굿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역시 필봉 굿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매력때문에 방학기간이면 매년 4,000여명의 학생이 전수관을 찾아 필봉 굿을 배우고 있다. <출처:경향신문>

지자체들, “특산물 떠나 郡도 뜨쥌”

‘마늘박물관, 녹차관광단지, 한방휴양관광단지...’ 경남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산품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 높이기엔 열을 올리고 있다.

남해군은 바닷바람을 머금고 자란 섬 마늘의 주산지. 1999년 행정직제에 ‘마늘팀’을 신설했으며, 올들어 국내 최초로 마늘박물관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완공과 함께 ‘보물섬 마늘축제’가 선보일 계획이다.

이 축제에는 마늘 품평회와 마늘까기대회, 마늘따기 체험장, 마늘요리시식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녹차의 시배지인 **하동군**도 지역을 한국 녹차의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군은 지난해 녹차전담팀을 구성, 야생녹차 부흥운동을 전개해 상표와 원산지, 품질인증과 결합된 ‘하동녹차’의 지리적 표시등

록으로 지리적 재산권을 획득했다.

또 매년 개최하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와 함께 올해부터 녹차의 본고장 화개면 일대에 녹차 체험·교육장과 ‘그린 투어리즘 녹차관광단지’를 조성에 들어갔다.

4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수질오염 방지와 피부염 예방, 세척력 증진에 효과가 탁월한 녹차 주방세제를 비롯, 아이스크림, 목욕비누 등 10여개의 녹차 가공용품 개발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버려지는 저등급 녹차 잎을 이용해 고추 병해충을 방제하는 새로운 고추재배 기술을 개발해 ‘하동 녹차고추’라는 녹차 특화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전국 양파의 10%를 생산하는 **창녕군**도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와 함께 양파 품종육성과 가공품 개발에 나서 최근 ‘양파 자구(子球)를 이용한 겨울철 양파재배법’ 개발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양파를 이용한 발효주와 스낵인 당과 개발에도 성공, 특허등록과 함께 기술이전을 추진중이다.

산청군은 지리산 자락에 자생하는 한방약

초를 지역특화작물로 선정, 최근 ‘약초과’를 신설하고 10만명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최대의 약초재배단지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또한 산청의 옛 이름을 딴 ‘산음골’이란 브랜드를 개발, 쌍화차와 오가피차 등 22개 종류의 한방약초 관련 상표등록도 마쳤다.

지리산 자락의 1,000여종이 넘는 약초를 이용한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지역축제의 성공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거제시**의 ‘치자 향수’와 동백 씨를 원료로 한 **통영시**의 ‘동백’ 화장품 등도 자치단체의 역작으로 꼽힌다.

하영제 남해군수는 “조그마한 섬마을 남해가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산품인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한국일보)

산청군 제1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수기관 선정

경남 산청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지리산한방약초 축제를 주민참여에 의한 생산적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로 발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람회 기간중 13일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경호 문화관광과장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약초 재배능가의 혁신적인 노력, 기관·사회단체의 활발한 지원에 힘입어 생산적인 지역축제로 승화되고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

시켰다’고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발표를 통해 군은 류의태·허준선생이 인술을 펼친 동의보감의 고장으로서 지리산 자락에 자생하는 1000여종의 효능이 우수한 약초재배의 최적지인 점에 착안, 지리산 한방 약초축제행사를 개최해 올해 제4회를 맞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승격되는 등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의 성과로는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53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초와 한약재 2억4천만원, 농특산물 1억4천

4백만원, 한방향토음식 1억4천만원의 판매와 265억원의 소비승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산청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방휴양관광지와 한방약초축제 홍보 전시관을 설치·운영하고, 두충흑돼지 등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도 개최해 산청이 전통한방의 본 고장임을 대외에 과시했다.

산청군은 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및 한의학과 대학유치와 한방과 관련된 산업을 지속 발전시켜 산청이 명실상부한 한방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면서 자치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밝혔다. (출처:뉴스1)

제8회무안백련대축제 평가보고회

제8회 무안백련대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던 무안군은 11월 23일 군청회의실에서 군수, 축제추진위원, 군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금년축제는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으며 특히 외지인 비율이 90%가 넘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명실공히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위주의 축

제운영에서 벗어나 9일 동안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위주로 한 테마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련을 소재로 한 친환경 문화축제로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됐다.

군은 금년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와 수상무대, 백련 탐방로를 설치했으며 입장료, 주차료 수입 등 직접수익이 4억5천8백만원에 달했고 간접수익도 267억에 달해 과거 어느해 보다도 지역경제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출처:무등일보)

대구시, 청소년 문화 존 3곳 운영

대구시는 시내 3개 지역을 청소년 문화 존(Zone)으로 지정해 내년 초부터 청소년 문화체험 장소로 활용한다고 11월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아카데미 존인 중앙 존(중구 중앙로의 대구백화점 앞, 국채보상공원, 228기념중앙공원)과 스포츠 존인 두류 존(달서구 두류동의 두류공원 야구장, 공원 일주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문화역사 존인 범어 존(수성구 범어동의 범어공원, 청소년수련관, 흥사단 강당을 지정했다.

중앙 존은 영상문화제와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문화교실 등을, 두류 존은 자전거 스포츠와 댄스, 길거리 농구 등을, 범어 존은 전통악기 교실과 전통문화놀이, 문화체험마당 등을 각각 운영기로 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복귀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드롭인(Drop-In, 잠시 머무) 센터를 설치, 운영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인천 효성서초교, 노래극 판소리 개사해 눈길

“전통 문화 통해 애향심 키워요.” 인천 효성서초등학교(교장 김수명 선생님) 어린이들은 11월 24일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전통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1년 동안 어린이들이 연습한 판소리와 시조창, 전통가곡 등 전통문화를 발표하면서 우리 고유문화를 이해하는 자리. 하지만 여느 전통문화 발표회와는 달리 노래극이나 판소리 등에 나오는 가사를 인천지역 주요 유적지와 명산 등의 지명으로 개사해 애향심도 함께 키웠다.

공연의 최고 볼거리는 31명의 어린이가 꾸민 ‘인천에서 태어나서 좋은 스승 만나서’라는 노래극. 서당에서 어린이들(학동)이 공부는 안 하고 제기차기나 닭싸움 등을 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훈장선생님이 들어온다. ‘우당탕’ 한바탕 난리를 친 뒤 학동들은 자리에 앉아 ‘하늘 천 따 지~’ 하며 공부하는 척한다. 이를 본 훈장선생님이 ‘에헴~’하고 불쾌해하자 학동들이 춤과 노래로 선생님의 기분을 풀어드린다는 내용. 이때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인천향교와 문학산성, 강화산성 등 인천의 대표 명물들이 등장해 저절로 인천의 유적지를 배울 수 있다. 이 밖에 소양초교 어린이들의 ‘도라지’ 합창, 검단초교 어린이들의 ‘오나라’ 국악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광자 교감선생님은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키울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출처:소년동아>

한화, ‘사랑의 공부방’ 등 매월 지역특성 맞춤 봉사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창업이념인 “기업 보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랑의 친구, 미래의 친구”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보전, 자원봉사 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에 전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일회성, 이벤트성 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유급자원봉사제”도 도입했다.

지난해 8월에는 월드비전 및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사랑의 공부방”과 “사랑의 집수리”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활동에만 연간 10억원을 투입하고 임직원 2천여명이 공부방 선생님과 집수리 기술자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 공부방” 지원 사업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에 한화 임직원이 영어나 수학 선생님이 나서고 어린이들을 위한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사랑의 집수리”는 저소득 가구를 선정해 무료로 주택을 개보수 해준다.

아울러 1만5천여 임직원이 매달 월급에서 십시일반으로 각출하는 7억5천여만원과 회사 기부금 등 18억원의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을 조성해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한화의 60여개에 이르는 전 사업장 임직원들은 매달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내 낙후된 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 장애인 외출보조, 목욕봉사, 환경 보호 활동, 무료 특별 합동결혼식, 낙후된 학교에 도서와 PC 보급, 불우이동 초청행사까지 한화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매년 시각장애인용 점자달력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05년 점자달력은 탁상용 및 벽걸이용 두 종류가 한 세트 구성됐으며, 신청 기관 및 단체에 최대 100세트씩 1만5천세트를

를 기부한다.

한화석유화학 울산공장 임직원들은 시각장애인 위한 톨스토이 단편집과 요리책을 직접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소설책을 제작 중이다.

또한 한화그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업 홈페이지(with.hanwha.co.kr)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각장애인인 노약자를 위한 “소리로 읽은 홈페이지”로 새롭게 단장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지난 2월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선정한 메세나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매년 “교향악 축제 전액 지원”으로 문화예술계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축제 △서울세계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세상 등을 개최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 자원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나서고 있다. (출처:제일경제)

‘붕어빵’ 지방축제 900여건 1,000억 써

올 들어 10월까지 열린 지방축제는 900여건에 예산만 1천9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축제는 많지 않다. 철쭉이나 전어, 눈, 해맞이 축제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소재가 비슷비슷한 데다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길놀이 등 행사 내용도 차별성이 없다. 지역들 사이에 ‘원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축제들을 양산해낸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10월 ‘제1회 내포사랑 큰축제’를 열었다. ‘내포(內浦)’는 홍성군을 포함, 인근 6개 시·군을 묶어서 불렀던 조선시대의 지명. 내포문화에 관한 연구용역

이 채 끝나지 않아 올해 행사에 반영되지 못했고, 대신 록페스티벌, 민속놀이, 차력묘기 등으로 채워졌다. 홍성군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내포문화’를 활용한 축제를 준비한다고 해서 미리 선점하려고 축제를 열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행사를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 중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시상금 명목으로 참가자들에게 지급, 감사원이 조사중이다. 지역 문화와 향토 자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한 전문가는 “대학 교수나 이벤트 업체를 통해 1회성 행사를 똑딱 만들어내는 경유

가 많다”며 “벚꽃 축제에 맞춰 꽃을 피우기 위해 나무밑에서 군불을 때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런 모습들은 1999년 시작돼 성공한 지역 축제로 꼽히는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함평군은 ▲제주도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소재를 유채꽃에서 나비로 바꿨고 ▲나비 인공사육팀을 구성했으며 ▲나비 문양의 대문을 다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이각규 소장은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 중 10% 정도만 특색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출처:경향신문)

가족과 함께 가 볼만한 해맞이 명소 총망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어두움 태우고 신새벽 열어라

해남, 땅끝이 아닌 한반도 땅의 시작

서울에서 해남까지 1500리. 승용차는 대중교통이든 5시간은 족히 걸린다. 서울에서 광주, 나주를 거쳐 영암 월출산의 병풍바위를 옆으로 비껴 넘으면 너른 평야가 펼쳐진다. 해남은 원체 땅이 넓다. 광주의 4배이고, 목포시와 비교하면 25배나 크다. 너른 땅만큼이나 이곳 사람들의 삶도 여유와 멋이 있다. 그 넓고 여유로움은 문학에서 절정을 이뤘다. 김남주, 고정희, 황지우, 고희철, 김준태 같은 굵직한 문인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해남에는 고산 윤선도 유적을 비롯해 대흥사나 미항사 같은 아름다운 고찰이 있어 가족 나들이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해남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도음식이다.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지기로는 남도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읍내리의 천일식당(061-536-4001)이다. 1924년고 박성순 할머니가 문을 연 이래 80년의 내력을 자랑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네 번을 다녀갔다고 하며, 김종필, 고건 등 유명인사가 거쳐간 음식점이다. 대표적인 메뉴는 떡갈비정식(1만7천원). 그러나 무엇보다 토하젓, 어리굴젓, 갈치창젓 등 남도의 고풍을

해남 땅끝해맞이축제

일몰(12월 31일 16:00~16:15)과 일출(1월1일 07:30~08:00) 시간에 맞춰 열린다. 일몰 행사는 해넘이제, 땅끝노래마당, 해남군고공연, 줄긋, 강강술래, 씨김국, 달집태우기 등. 일출 행사는 해맞이제, 띠뱃놀이, 선상해맞이 등이 열린다. 땅끝마을은 해남읍에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 해돋이를 보고 바로 한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보길도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229)

2004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경북 포항시 호미곶(포항시 남구 대보면)에서 12월 31일 1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해 아침까지 열린다.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는데, 대표적으로 1만명분 떡국을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이 설치된다. 이 가마솥은 무게만해도 1톤이고 지름 3미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국자대신 뱃사공이 사용하던 노(櫓)를 이용해 떡국을 젓는다. 이밖에 호미곶 새해 첫 결혼식과 새해 소망을 기원행사와 각종 공연이 열린다. 한편 해맞이축전과 함께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인 과메기 축제도 양일간에 걸쳐 있다.(포항시청 054-245-6733)

첫갈과 톳나무, 우무 등 30여가지가 상에 오른다. 그런데 이지역 사람들은 이집을 회피한다. 황도훈 전 해남문화원장은 “요즘의 이집 음식맛이 해남

맛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10여년전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한 답사기에 소개된 이후 서울사람들 입맛에 맞게 음식맛이 변했기 때문이란단. 그래도 한번은 가볼 만 하다. 축협 맞은편에 있는 용궁해물탕(061-536-2860)은 주말에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 해남 매일 시장에서 해물장사를 하던 주인의 안목으로 고른 낙지, 소라, 꽃게, 대합, 맛조개 등 30여종의 온갖 싱싱한 해물이 올려진다. 해물탕이 3~5만원. 해남의 웬만한 식당은 대부분 음식을 잘한다. 심지어 맛없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는 버스터미널 근처의 식당도 음식을 잘한다. 해남공용터미널 바로 옆의 청운정(061-533-6633)의 해물탕도 맛도 좋고 푸짐하다.

해남에 가면 땅끝마을이 있다 한자로는 토말(土末). 말그대로 우리나라의 땅끝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곳은 중앙의 기준에서 땅끝일 뿐, 사실은 한반도가 시작되는 땅이다. 십년 전 만해도 땅끝마을(해남군 송지면 갈두리)은

조용하고 평범한 어촌마을이었다. 그 흔한 여관도 횃집도 드물었다. 그저 멸치잡이나 김, 미역양식 등 바다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 세월따라 세상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10년전과 비교하면 땅끝마을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마을 앞 갈두항 진입로는 확장공사로 고샅길 같은 예전 정취는 사라졌고 마을 뒤 갈두산에는 거대한 땅끝관광지가 들어섰고 마을에는 모텔과 횃집, 카페로 넘쳐난다. 전형적인 관광지로 변모했다.

포항, 한반도 꼬리에서 맞는 해맞이

포항은 포항제철이 주는 차갑고 묵직한 쇳덩어리의 이미지 때문인지, 여행이나 문화답사와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느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도구해수욕장에서 호미곶을 거쳐 구룡포항으로 이어지는 매혹적인 드라이브 코스(925번 지방도로). 이 도로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 일컬어지는 7번 국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포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호미곶등대 박물관(054-284-4857)이 있다. 한국 등대의 발달사와 각종 해운 및 등대자료 7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영일민속박물관(054-261-2798)은 포항지역의 민속과 향토 고유의 풍속을 볼 수 있다.

포항의 지역음식으로는 해산물에 대표적이다. 특히 콩치를 해풍에 꾸덕꾸덕하게 말려 먹는 과메기는 겨울철 이지역 최고의 별미음식. 최근에는 서울 등 어느지역에서나 이지역 과메기를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래도 현지에서 과메기를 먹고 싶다면 송림촌식당(054-284-9123)을



향일암해맞이축제

타 지역의 해맞이 축제의 행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31일 오후부터 밤까지 길놀이, 신년성화 점화와 각종 공연이 있다. 날을 새우며(해를 넘기며) 제야의 종 타종과 불꽃놀이 일출가요제 등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한편 여수에는 일출명소가 여러 곳 있다. 거문도등대, 금오도 망산, 봉화산, 만성리해수욕장, 오동도, 자산공원, 용월사, 무술목, 대미산성, 구봉산, 봉화산 등(여수시청 관광홍보과 061-690-2249).

템플스테이

새해맞이 ‘절’ 오세요

한해를 조용히 뒤돌아보며 잠시나마 속세를 잊고, 고즈넉한 풍경소리를 들으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을 수 있는 ‘해맞이 템플스테이(사찰숙박)’ 프로그램이 전국 18개 사찰에서 열린다(2004. 12. 31 ~ 2005. 1. 1). 템플스테이는 사찰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골굴사는 문무대왕릉 해맞이를, 내소사는 격포항 해넘이·곰소항 해맞이로 지역 특성을 살린다. 자광사, 미황사, 골굴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문을 열었다.

공주 마곡사, 해남 미황사, 순천 송광사 등은 새해맞이 등산을 한다. 양양 낙산사, 예산 수덕사, 해남 미황사, 공주 마곡사 등에서는 1월 1일 0시에 새해맞이 타종식을 한다. 김제 금산사와 예산 수덕사는 산사음악회가 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떡국 나눠먹기를 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31일 오후 시작, 1월 1일 새벽 3~4시에 일어나 새해맞이를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업단(02-732-9927)이나 각 사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용은 대부분 1~3만원 정도.

찾는게 좋다. 주인이 과메기 덕장을 직접 운영했던 탓에 과메기 맛이 남다르다고 한다. 물회는 포항이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어부들이 갯잡아 올린 생선을 회쳐 양념과 함께 물에 말아 하루를 들이켰던 식사대용이었다. 북구 상원동의 포항물회(054-247-2900)는 주인 할머니가 50년 동안 물회만을 만든 집. 이집 물회는 광어, 우럭, 가지미, 도다리 등을 사용하는데 한그릇에 1만원(자연산 1만3천원).

여수, 천하일경 향일암 일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남 여수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향일암의 일출이 장관이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무성한 동백나무와 금오산 주변의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향일암은 낙산사의 홍련암, 남해 금산의 보리암, 강화 석모도의 보문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대로 남해 수평선의 일출은 천하일경으로 국내에서 첫손가락에 꼽힌다. 매년 이곳에서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여수에 가면 지역 별미 세가지는 먹어봐야 한다. 그중 하나가 납작하고 길쭉한 서대인데 맛이 담백하고 비리지 않아 회나 조림으로 많이 먹는다. 구백식당(061-662-0900)의 서대회는 서대와 각종 야채에 막걸리로 한달이상 발효시킨 식초를 넣어 건강까지 더해주는 맛이 일품이다. 서대회 한접시에 1만원. 또하나의 별미인 군평서니 구이는 험악한 생김새답게 뼈와 가시가 억세지만, 맛이 담백하다. 이곳에서는 영광의 굴비만큼이나 유명하다. 역시 한접시에 1만원. 여수에서 또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일본말로 하모라고 불리는 참장어.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다. 여순식당(061-684-2219)에서는 회와 샤브샤브가 3~5만원 정도이고 구이는 1만2천원으로 싼값은 아니지만 참장어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어종이다.

글 _ 전명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사진협조 _ 양양군

전국 해맞이축제 정보

전국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에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동해안 주요 지점별 새해 첫날 해 뜨는 시각(오전)은 독도가 7시26분, 경주 감포가 7시32분, 포항 호미곶 7시33분, 울진 망양정은 7시36분 등이다.

강원양양 예로부터 일출의 고장으로 유명한 낙산사 의상대를 비롯해 낙산해수욕장과 하조대해수욕장, 남애항, 설악산 대청봉 등에서 열린다. 동해신묘제례 봉행,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모닥불 밝히기 송구영신 한마당 등 경북영덕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에서 달집태우기, 송년음악회, 불꽃놀이 등의 전야행사와 새해를 알리고 안녕을 기원하는 경북대중 타종,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한해의 소원을 비는 해맞이행사 등

부산 용두산공원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선박 해상 퍼레이드, 경비행기 축하비행 등

경남사천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길놀이를 시작으로, 신년축포, 신년 시낭송, 패러글라이딩 시범 등. 이날 삼천포대교 아래서 1만여 그릇의 떡국으로 관광객과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소망떡국 나누어 먹기 행사도 있다.

강원태백 태백산 천제단, 당골광장, 황지연못 등에서 열린다. 태백산은 예로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던 천제단이 있어 우리민족에게는 염원의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소망의 등불피우기, 새해맞



이 길반디 산행 등

강원강릉 해돋이 명소인 경포와 정동진에서 열린다. 정동진에서는 모래시계 회전식과 진포배기 소원빌기 등. 동해안 최대 인파가 몰릴 경포대에서는 콘서트와 불꽃놀이, 경포호수 알몸마라톤대회, 바다안기수영대회 등이 열린다.

강원동해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 두타산 정상 등에서 열린다. 송구영신을 기원하는 33발의 폭죽으로 새해를 맞는다. 또 해상 선박 퍼레이드와 모닥불의 추억만들기, 촛불페스티벌, 새해 소망기원 불꽃놀이, 송망풍선 날리기, 연하장 쓰기, 무료 떡국나눠먹기 등

강원삼척 1일 오전 6시부터 새천년도로변 소망의 탑과 비치조각공원 등에서 일출전 해맞이 콘서트와 불꽃놀이, 사물놀이 및 합창단 공연에

이어 일출과 동시에 해맞이 징치기, 새해건강기원 걷기대회 등이 이어진다.

충남당진 당진군 왜목마을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연다. 관광객 노래자랑과 연예인 공연, 밤과 고구마 구워먹기, 가래떡 만들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충남태안 태안군에서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7개 지역에서 행사가 열린다. 안면도 황도항,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근흥면 채석포항, 근흥면 안흥항, 근흥면 원안해수욕장, 근흥면 안흥외항, 남면 마검포항 등.



우리문화를 느껴봐! 배워봐! 만들어봐!

노원고 전통문화 동아리 '하늘어워'

전통문화의 저변은 기성세대 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층에서부터 활발한 관심과 이벤트가 진행될 때만이 기초가 튼튼해지고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각 고교 전통문화 동아리의 청소년들과 일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문화 배우기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배우는 생생한 현장을 다녀왔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전통문화 동아리가 존재한다. 그 형태는 사물놀이나 풍물놀이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노원고 전통문화 동아리 '하늘어위'는 이 양자를 결합한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동아리이다. 지난 1991년에 설립된 하늘어위는 학교 축제행사 때 대동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당시의 선배들에 의해서 처음 태동하게 됐다. (후배들은 이때의 선배들을 마이너스 1, 2기로 부른다.) 그 이후 하늘어위는 학교의 공식적인 전통문화 동아리로서 학교 축제때의 대동제는

다는 것에서 남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동제를 앞두고 4박5일 정도씩 연습을 하다보면 뿌듯하다"고 밝혔다. 동아리 이름인 하늘어위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하나의 흥'이란 뜻. 그 이름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일년에 한번 학교에서 진행되는 축제기간중의 대동제. 학교 전체학생들이 몰려나와서 일심동체를 유발하는 대동제 행사 때 하늘어위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한다. 하늘어위에서는 4개의 전통문화 악기를 다



물론이고 신입생 환영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서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곤 했다. 현재 1~2학년 3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하늘어위는 지금까지 배출한 회원만도 120여명에 달한다. 그 선배들중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에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선배는 전통문화 문화일꾼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모두 하늘어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하고 전통문화 저변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하늘어위의 멤버들은 전통문화 동아리 회원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김은영(노원고 2)양은 "남들이 별로 하지 않는 전통악기를 다룬

룬다. 쇠, 징, 장구, 북이 바로 그것. 악기들은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더욱 기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받을 계획도 갖고 있다. 물론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후배들을 방문해서 전통악기 다루는 법과 전통문화의 세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또 현역들이 주최하는 MT에 참석해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함은 물론이다. 하늘어위의 애로사항도 많다. 특히 변변한 연습장소가 없어서 학교 근처 중랑천 다리 밑 유원지에서 연습을 하다가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낭패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하늘어위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잊

혀가는 우리의 소리인 전통악기를 다룬다는 특이성과 사물놀이로 세계화에 성공한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성공담을 주춧돌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들이 있어서 우리의 전통문화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성동청소년수련관 '문화존'

최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음으로 느끼기'는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서 느끼고, 전통문화 강습으로 배우고,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만들자는 모토로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성동문화존은 크게 3가지 마당(공연/강습/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막공연과 전통줄타기 및 전통마당극으로 공연마당을 구성했고 옛부터 전해 오던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무형문화(전통무용/사물놀이/판소



성동청소년수련관의 성동문화존이 바로 그것. 이곳에서는 우리고유의 전래 문화인 전통문화를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성동문화존의 전통문화를 '몸으로 듣고, 마

리/택견)와 유형문화(택견/숫대/전통매듭/토우/전통탈)로 나누어 전문이수자들과 함께 배우는 강습마당으로 꾸며졌다. 이외에도 체험마당(추석송편만들기/동지음식만들기/대동놀이만들기/문화유적지도 만들기)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달 들어서도 12월에 맞는 풍성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동지음식 만들기'가 바로 그것. 성동종합행정마을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고유의 세시풍속중 동짓날의 작을설을 맞이하여 전래 음식인 팔죽을 만들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새해 소망을 담은 쪽지들을 모아 새해 소망을 빌면서 흥겨운 전래놀이를 체험해 보는 세시풍속 만들기이다.





이러한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우리의 문화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동마중학교 3학년 박수진 양은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하는 마당극 공연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객석메트도 깔고 텐트도 지키고 물과 도시락을 나눠 주면서 마당극

심청전을 봤다”며 “심청전이란 우리고유의 마당극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을 쏟을 만큼 감동을 받았고 자원봉사의 보람과 우리 마당극의 감동과 재미를 맛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며 이번 문화존 행사의 기쁨을 전했다. 조상들로부터 무형문화(사물놀이, 판소리, 전통무용, 택견)와 유형문화(숫대, 문양, 매듭, 전통탈, 토우)에 대해 이해하고 기법들을 직접 사사 받아 전시와 공연을 하는 체험마당도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한 일련의 전통문화존은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참맛을 전달해 주었다는 의의가 충분하다.

취재 _ 김준호 기자

INTERVIEW

“잊혀져 가는 우리의 소리를 배워요”



‘하늘어위’ 회장
김민 (노원고 1)

내년도 하늘어위 동아리를 일곱어 나갈 1학년 김민 군. 그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란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한다. “사실 ‘전통’이란 단어에 약간 선입견이 있는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전통문화란 것이 배타적이고 전통에 얽매이고 보수적인면이 강해서 요즘 같이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들에게는 외면당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군은 실질적으로 전통문화 동아리(사물놀이/풍물놀이반)를 접해본 학생들은 그러한 견해가 선입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한 ‘악기’를 다룰줄 아는 것은 자신에게 ‘특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음을 내는 악기들과 달리 항상 같은 소리만 낼줄 알았던 ‘타악기’를 치는데 많은 변화와 무궁무진한 가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서양 악기 못지 않

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우리나라의 전통하면 ‘예의’라는게 빠질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인성적인 면도 배웠답니다.”

실제로 하늘어위 동아리의 장점중 하나는 ‘예의’이다. 선후배간의 예의(예를들어 인사를 공손히 하거나 꼭 ‘선배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존대를 하는것)를 지켜 자연스레 웃어른이나 뒷사람에게도 예의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김군은 ‘대동제’ 행사 때 전통악기 소리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뭉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단다. 물론 그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

하늘어위 회장 김민군의 애피소드 한가지. 하늘어위는 대동제 준비를 위해서 여름방학부터 연습의 피치를 굉장히 올려 연습 강도가 무척 세다고 한다.

“정말 열심히 하다보니 다들 물집도 잡히고 얼굴은 새까맣게 탔는데 결국 축제 3일을 앞두고 제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쓰러져 버렸죠. 그러자 동기 여자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3학년 선배님이 밤 10시에 절 업고 병원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힘들게 축제를 치르니 정말 그때의 보람은 두배일 수 밖에 없어요.” 김민 군은 하늘어위 동아리 활동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장애우 · 독거노인들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

‘자기 문화’ 알고 ‘남의 문화’ 배운 2박 3일

통합복권기금 사업 -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조금은 긴뚱한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말그대로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를 발굴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난 충북도지회에서 시행하는 3단계 사업 중 2차 일정에 맞추어 제주도를 다녀왔다.

총 80명이 참가하고 총 인솔자로는 보은원장님과 충북도지회 사무처장님이 계셨고, 보은, 옥천, 영동, 청원 문화원에서 20명씩 대상자를 인솔하여 2박 3일의 일정에 참가하였다.

지역에서 출발하는 일정 때문에 대상자들은 청주공항에서 출발하였고, 난 서울에서 출발 제주공항에서 만나 같이 일정에 참석하기로 하고, 출발당일 아침 일찍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도착하니 지역에서 피켓을 들고 일행을 반기는 사람이 있었다. 현지에서 안내를 해주는 분들이었다.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여 예정된 인원들이 모여 처음 식사자리를 가졌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한끼의 식사를 하면서 내가 타야할 차량의 대상자들을 만나보니 독거노인과 장애우와 도움을 주실 도우미분들이 계신걸 알았다. 처음 뵈는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특별 대접을 해주시며 ‘암행어사’ 라며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이고 왜 이런 사업을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충북지회 주최로 80명과 함께 제주도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쉽게 바다를 접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인 충북지역 주민들에게는 바다를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더욱더 제주도를 탐방지역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바다는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일행 중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바다가 보일 때마다 같이 탄성을 질렀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제주도는 널리 알려진 대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한때 여행 붐을 타고 효도관광이 유행할 만큼 제주도여행이 흔해진 시기도 있었다. 2박 3일 동안 관광지만 다녀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관광코스와 장소도 다양하고 많지만, 문화탐방을 위한 역사적인 장소와 역사적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도 함께 견학하고 자세한 안내와 설명도 들을 수 있었고, 최고의 시청률과 최고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드라마의 장소가 되었던 곳도 다녀왔다.



• 문화원 가족과 함께 한 필자(왼쪽에서 두번째)

불편한 몸에도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의 보여

불행하게도 일정 내내 비가 내렸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가 걱정되었고, 불편한 장애우들이 걱정되었지만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에 낙상사고라든지 불미한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을 들으며 모든 일정을 아무 사고 없이 끝마칠 수 있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지루해할 역사적 배경설명과 교육에 빠짐없이 같이 듣고 교육을 받으며 열렬한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밤 늦도록 숙소에서는 이야기꽃이 계속 피어났으며, 아침마다 서로 인사하는 눈빛에선 즐거움이 솟아났다. 일정 중 몇 분들과 대화를 통해 너무나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좀더 자주 이런 행사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내손을 잡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며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어 하셨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의 지역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지, 동

지애를 느꼈는지, 여행을 하면서 친해진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80여명의 참석자들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전부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를 챙겨주며, 참가자들의 행복해 하는 얼굴을 뒤로 마무리하며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체험 대상자들은 이 사업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지만 사업을 통해 서로를 알 수 있었고 서로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참가자들은 참가자대로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일정이었다고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었다.



먼저 제주에서의 2박 3일 동안 처음 경험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같이 보내며 장소 섭외, 숙소 및 식당, 탐방코스과 시간조정까지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현지 문화원의 도움 없이는 힘든 사업’ 새삼 느껴

이 사업에서 연합회 직원인 나의 역할이란 단순히 지원금을 교부받아 각 지역으로 배분하여 송금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실무담당과 위원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실태를 파악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정을 정하는 일도 지역문화원의 일이요, 사업비의 내역도 지역문화원의 실무담당자들의 일이라고 막연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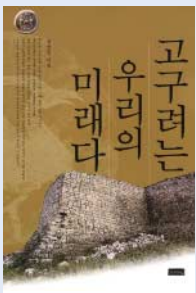
세부적인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며, 적은 숫자로 많은 인원을 인솔하고,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나씩 점검해 가는 일은 여느 행사와 같다. 하지만 몇 시간 체험하게 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닌 한 지역의 문화유적지, 생활문화, 테마기행, 생태체험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지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현지 문화원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사업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일정동안 단순히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마음의 나눔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는 나의 작은 생각으로 이 사업이 그냥 이대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기분의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되어 자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흔히들 말하는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심이라는 말들도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는 나의 작은 생각으로 이 사업이 그냥 이대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기분의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되어 자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흔히들 말하는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심이라는 말들도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작은 생각부터 시작하여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New Books

21세기에 다시 동아시아중해 패권을 쥐어야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 윤명철 지음. 고래실판. 288쪽. 1만1천원.

고구려연구회 이사인 저자는 책에서 고구려인의 시대정신, 광개토대왕의 세계질서전략, 고구려의 21세기적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고구려를 단순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헤쳐가야 할 미래를 고구려에서 찾아야 한다며 '동아시아중해론'을 주장한다. 당시 고구려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까지 아우르는 동아시아와 지중해를 배경으로 웅장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동아시아중해의 이론. 저자는 고구려가 당시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민족은 21세기에 동아시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천체사진 촬영법도



조상호의 천체사진 길라잡이 | 가람기획 판. 272쪽. 1만8천원

공학박사인 조상호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천체사진 촬영 노하우를 소개한 책으로 초보자를 위한 성운과 성단, 은하, 달, 별자리 찍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 실용서 성격의 책이지만 저자는 천체사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담고 있다. "흔히 많은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나는 장비가 없어서' 혹은 '망원경의 성능이 떨어져서' 등의 변명을 하는데 좋은 장비로 화려한 대상을 찍은 사진만이 멋진 사진이 아니고 평범한 장비로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고 말한다. 13장에는 새로이 각광받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천체사진 촬영법을 소개하고 있다.

고두심 · 도올 · 임동창 등 예술인과의 만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 현주하 지음. 명상 판. 248쪽. 8천5백원

4.3 항쟁을 겪는 등 고뇌와 평탄치 않은 삶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시인인 저자가 시인 김춘수, 도올 김용옥, 탤런트 고두심, '경마장 가는 길'의 하일지, 피아니스트 임동창, 화가 한명섭 등 다양한 예술인과의 만남으로 얻은 인생의 아름다운 의미를 깊이 있는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중에서 고향이 제주로 동향한 고두심과의 만남은 많은 힘이 되었다. 저자는 고두심에 대해 "나는 평소 스타라고 하면 굉장히 오만하고 도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만큼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끈끈하고 은근한 맛이 우러나오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장미에 비유하지만 나는 그녀가 엉겅퀴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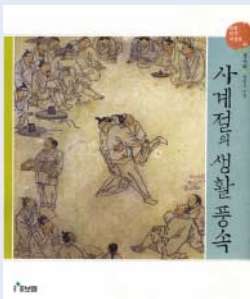
12개 전통마을 건축가적 시각에서 생태학적 조망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1. 2 | 한필원 지음, 북로드 펴냄. 316쪽, 각 1만5천원

마을을 답사하고 문화나 역사, 생활, 가옥을 소개한 책은 많다. 하지만 그 마을의 구성요소들의 존재 의미를 해석한 깊이 있는 책을 찾아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농촌주택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 전통마을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딴 저자는 전통마을을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마을 터전을 잡았고, 마을 안 공간을 어떠한 체계로 연결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삶과 자연을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마을 안팎의 구도가 어떠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등... 이를 전문가답게 건축학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 1권에서는 옷골마을, 한개마을, 낙안읍성, 성읍마을, 하회마을, 강골마을을, 2권에서는 양동마을, 도래마을, 달실마을, 원터마을, 외암마을, 왕곡마을등 모두 12개의 마을을 담았다.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면 볼 수 있는 ‘풍속화첩’



사계절의 생활 풍속 | 정병모 지음, 보림출판사. 80쪽, 1만8천원

초등학교 고학년생 이상을 위한 풍속화. 조선후기의 위대한 풍속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의 작품 50여점이 컬러도판으로 실려 있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부터 300여년 전에 제작된 풍속화 최절정기의 작품들만 엄선했다. 여타의 많은 미술책이 미술사와 미술기법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했다면 이 책은 그림 한점이라도 제대로 보고 느낄 때 제대로 미술 감상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따라서 이 책은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등학생에서부터 그림 감상을 처음 시작하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볼 수 있다. 특히 주요 그림의 배경이 되는 도판을 다음 페이지에도 실어 보다 심층적인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썼다. 저자는 풍속화와 민화를 찾아 세계를 누비는 말한 사람에 다 아는 대학교수다.

‘고3생’ 마흔여덟 남자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



고3 CEO 이야기 | 김태웅 지음, 동양문고. 224쪽, 8천5백원

어릴 적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 증권출판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된 후 아들과 함께 고교 3학년에 복학해 전교1등까지 하는 이야기. 또 한쪽으로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탄탄하게 일구어 놓은 회사를 거저 주다시피 하고 나와야 했던 일이며 다 쓰러져버린 누더기 출판사를 인수하여 탄탄대로에 올려놓기까지의 사연들이 이어진다. 그럭저럭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며 살아도 될 나이에 그는 다시 고3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나이 마흔 여덟. 그가 좌표를 바꾸는 순간 목표는 대학 입학이었다. 신입사원 마저도 웃을 일이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고 반년이 지나 1학기말 고사를 마친 그의 손에는 전교 1등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담긴 성적표가 쥐어졌다. 나약해지거나 힘들 때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속의 성과 로맨스

‘화냥년’이란 욕은 누가 들어야 하나?

“야! 이 화냥년아!” 여인네들끼리 싸울 때 한방 날리는 ‘메가톤급’ 욕이기도 한 이 욕은 본래 ‘환향녀(還鄕女)’를 일컫는 말이었다.

환향녀는 1637년 조선이 병자호란을 거치며 청나라로 잡혀갔다 고국에 돌아온 여자를 통칭하는 말이었다. 한나라의 어버이라 할 수 있는 임금부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아무런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같은 민초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10대 소녀에서부터 나이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청나라 군사들의 손길 발길 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되놈’들에 잡혀간 여인네 수가 무려 50만명. 제주도 인구와 맞먹는다.

하나의 일화. 1650년 조선조 효종 원년에 청나라 구왕은 조선의 공주에게 장가들겠다고 청혼을 해온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평민의 처녀를 골라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훗날이 두려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채 임금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 각료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때 종실의 금림군 이개군이 자신의 딸을 청나라에 보낼 것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녀를 ‘의순공주’라 칭하고 청나라로 떠나보냈다. 나라에 충성하는 일편단심 그 하나 때문에 딸을 청나라로 보내는 부모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부모에게 작별인사하고 일행과 함께 평안도 정주땅에 이른 ‘의순공주’ 역시 압록강을 보자 정든 고향산천과 부모 형제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다.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 나라의 구왕에게 아첨하며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의순공주는 가마를 멈추게 하고 가파른 벼랑아래로 몸을 던지고 만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당황한 노복들이 곧 정신을 차리고 벼랑으로 내려가 시신이나마 건지려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겨우 족두리만 건져와서 의정부시 금오동 선영의 아버지묘 밑에 장사를 지냈다. 지금도 이곳은 ‘족두리산소’라 불리며 매년 4월경에 동네사람과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여성수난은 고국을 떠날때보다 돌아와서가 더 컸다. 돈있는 집안에서는 큰 돈을 물고 아내와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일부는 청나라 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쳐 오기도 했다. 집안에 돈이 없거나 도망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여인네들은 불개 노을지는 남녘 하늘만 쳐다 보며 매일 밤 속울음을 울 수 밖에 없었다. 중국 동북부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고려보’라는 마을이 바로 그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등지를 틀고 살다간 곳이다.

<다음호에 계속>

개성공단- **한국토지공사**가 책임지겠습니다

- 2003. 6 개성공단착공식
- 2003. 12 개발사무소 착공
- 2004. 4 임대차 계약서 서명
- 2004. 4 시범단지 및 1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04. 6 시범단지 토지분양
- 2004. 6.30 시범단지 준공**
- 2004. 하반기 시범단지 입주, 1단계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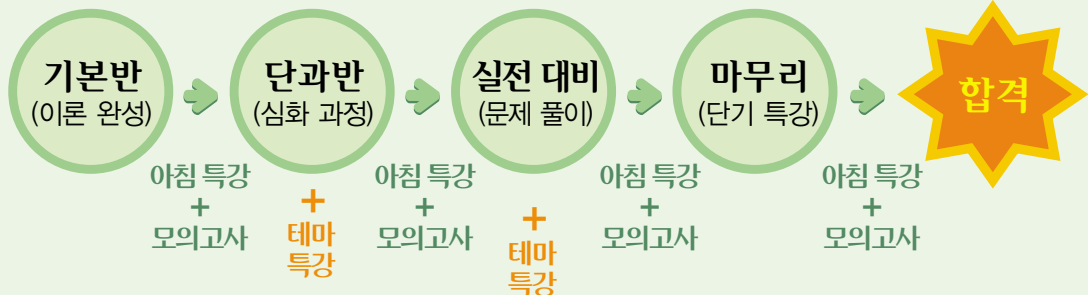


공무원 시험 최강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에서 합격을 향한 명강의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한교고시학원의 다양한 강좌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법원 · 등기 · 검찰직
남 · 여 경찰직	경찰 간부직	공무원 승진반
합격 특성화 프로그램	아침 무료 특강 + 합격 설명회 + 모의고사 + 장학생 선발 시험	

한교고시학원의 합격 전략 프로그램



한교고시학원의 과목별 교수진

국 어	김재정 / 성파 / 정재영 / 신동수 교수	민 법	홍성철 교수	교 정 학	공정식 교수
행 정 법	홍성운 / 이희억 / 김유환 / 황인성 교수	민법총칙	송시우 교수	형사정책	공정식 교수
영 어	유정기 / 장길상 / 김민권 / 유수연 / 심상대 교수	민사소송법	이희억 교수	국 제 법	곽구열 교수
한 국 사	조병현 / 박민주 / 신영식 / 이영철 교수	상 법	홍성철 교수	경 영 학	유동현 교수
행 정 학	장길봉 / 남정집 / 문정식 / 최승호 교수	경 제 학	최근 / 황정빈 교수	심 리 학	고선영 교수
헌 법	김당현 / 곽구열 교수	회 계 학	허홍석 교수	경찰학개론	김창윤 교수
형 법	진용은 / 김현 / 이상석 교수	세 법	김경섭 / 김석주 교수	수 사	임병락 / 이봉한 교수
형사소송법	진용은 / 강용택 / 이양수 교수	관 세 법	여주호 교수	보건행정	고성진 교수
부동산등기법	진용은 교수	교 육 학	김상겸 교수	공중보건	김OO 교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www.koreagosi.co.kr

02)814-9300(代)

02)813-6004 · 6005

노량진 전철역 맞은편 맥도널드 뒤 신한은행 2 · 3 · 5층